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 비행 과정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수 빈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

A criminal desistance study through work experience
of discharged juvenile deliquent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수빈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 수 빈

이수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B. 연구문제 및 가설 7

II. 이론적 배경

- A. 탈비행에 대한 이해 8
 - 1. 탈비행 개념과 정의 8
 - 2. 탈비행 요인 9
- B. 소년원 출원생 관련 정책 10
- C. 소년원 출원생의 관한 선행연구 12
- D. 근거이론 13

III. 연구 방법

- A. 연구대상 16
- B. 근거이론 16
- C. 연구절차 16

1. 연구 참여자 선정	16
2. 연구 참여자 특성	17
3. 자료수집 방법	18
4. 자료분석	20
5. 자료분석의 타당도 평가	22
6. 질적연구의 윤리	23

IV. 연구 결과

A. 개방코딩	24
B. 축 코딩	59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의 구조분석	59
2. 과정분석	65
C. 선택코딩	67
1. 핵심 범주	67
2. 이야기 윤곽	68
3.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 비행 유형	70

V. 논의 및 결론

A. 요약	76
-------	----

B. 논의 77

1. 소년원 남자출원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에 대한 논의 77

2. 소년원 남자출원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유형에 대한 논의 79

C. 의의 및 제한점 81

참고문헌 82

부록 85

표 목 차

<표 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직업훈련과정	11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도	18
<표 3> 면담 질문지	19
<표 4>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24
<표 5>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61
<표 6>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61
<표 7>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62
<표 8>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63
<표 9>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64
<표 10> 결과의 속성과 차원	64
<표 11>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의 유형	71

그 림 목 차

<그림 1>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60
<그림 2>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	67

ABSTRACT

A criminal desistance study through work experience of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Lee Su Bun

Advisor : Prof. Kweon Hae Soo, Ed.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juvenile delinquents desist from offending through their working experience. Samples are six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s who maintains a job at least three months without offending additional crime. They were selected by accessible intentional extraction and participated in the in-dept interview recording with their content. Interviews were implemented one to three times for each sample from December 2015 to April 2016. When needed, 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supplementation. Analysed data show 96 concepts, 41 minor categories and 19 categories in open coding. Main circumstance of desistance process through working experience appear that they stand on the edge of a precipice. Causal condition is being

isolated for repeated delinquencies. Contextual condition is not escaping from fixed criminal habits, feeling desolated to stand alone, feeling tough to overcome social prejudice, being tied up by the expectation of rapid change, and not harmonizing with colleagues. Arbitrating condition is furnishing a stepping stone, realizing a new meaning of work, being protected by several layers of securities, stabilizing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and building bonds with good people. Action/reaction is endeavoring for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determining to stick to a pursuit, stepping forward to success, and tasting the benefits and pleasures of work. Result is entering a period of stable work, having an ownership of the life, and finding a new identity. Process analysis shows confusing standstill stage, imperious stand right stage, standing and preparing stage and building an identity of a desisted delinquent stage. Selected coding reveals the core category, 'being reborn from a dead-end to a new identity with hope,' and three types: coexisting with conflict, aggressive, coming-from-behind.

Thes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excessive expectation from others is a negative factor for desistance, and therefore proper expectation fit for individual situations is needed. Second, self-supporting will and pressure of male discharged delinquent are positive factors for desistance, so consultant should intervene investigationaly into the view of a role and attitude. Third, the regular reward in work is a key factor to complementing drive control. Lastly, bonds with colleagues offer the practical example as a social resource.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5년 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4)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소년범은 51.4%로 전년에 비해 9.8% 급증했다. 특히 4범 이상 비율이 2009년 8.9%에서 2013년 1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과 재범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 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희망도우미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소년원 출원생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출원생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절실하다.

그동안 소년범의 재비행을 막고자 비행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빈곤, 보호자의 부재 등과 같은 재범요인들이 밝혀졌지만 소년범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즉,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한영선, 2011). 이처럼 비행유발요인과 재범에 대한 구조를 분석한다고 하여 실제 탈비행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Andrews와 Bonta(1994)는 시간적으로 먼 정적인 범죄유발요인들보다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역동적 요소의 개선에 치중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하여 최근 소년범의 재비행을 막기 위한 연구들은 재범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닌 해결에 초점이 두는 탈비행 연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탈비행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밝혀졌다. 탈비행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연대, 인생의 전환점, 정체성의 변화 등이 밝혀졌다.

그 중 Sampson과 Laub(1993)에 따르면 취업, 군입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유대관계는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고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작용되어 탈비행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특히 Sampson과 Laub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사건으로 결혼, 취업, 군 입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소년원 출원생이 출원 후 쉽게 경험하는 사건은 취업과 군 입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 수직적인 위

계질서와 통제된 생활로 인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직장에 직장인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인정받으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를 받을 때 출원 후의 위태로운 상태를 잘 버텨낼 수 있다(조경미, 2010). 따라서 직장에 소속될 때 동료들과 유대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된 일정한 생활패턴은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 작용되고 이외에도 직장에서의 성취경험, 유능감 등은 탈비행의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출원생의 직장생활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탈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쳐 탈비행 요인들이 실제 탈비행에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해 탈비행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탈비행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년원 출원생이 출원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 비행 중에서도 범죄여부, 위험성 등 비행의 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소년원으로 송치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소년 시기를 소년원에서 단기 1개월에서 장기 24개월까지 가정과 학교, 학원 등 일반적인 사회체계에서 분리되어 폐쇄적인 수용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상당부분을 폐쇄적인 소년원 생활환경에서 보내기 때문에 제한된 관계를 맺게 되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생에게 있어서 적응능력, 사회적 유대경험 등의 미숙함이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발생하게 된다(Altschuler and Brash, 2004).

또한, 출원생들이 출원 후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은 출원생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Altschuler 와 Brash(2004)는 수용시설에서 풀려나 불안정한 가족 환경으로 다시 돌아간 소년들은 사회복귀에 실패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렇듯 출원생들이 기존에 형성된 기본적인 환경인 변화하지 않은 가족, 비행친구들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출원생의 생활에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조윤오, 이유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출원생들이 출원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집안의 가난이라고 응답하였다. 출원 후 출원생들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출원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나름의 출원 계획을 세우고 취업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청년에 비해 어린 나이, 낮은 학력 등 갖는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취업경쟁에서 불리함을 갖게 되어 취업시도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출원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많은 서비스 업종 등의 불안정한 형태의 직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해수, 이연상 2013). 이는 곧 출원생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거나 직장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는 출원생이 직업 및 직장을 단순히 경제적인 난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취업형태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복잡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원생은 만연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제한되거나 혹시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불안해하며 스스로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Mears와 Travis(2004)에 따르면 출원생에게 소년원 출신의 꼬리표는 교우관계 형성과 취업활동을 하는데 왜곡된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으로 남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취업과 직장경험은 출원생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어 탈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옥채와 이정미(2006)의 연구에서도 친구의 유혹과 낙인하는 사회의 환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기능이 약한 가족 그리고 무계획 등이 재비행의 원인이 되어 소년원에 다시 입원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결국 탈비행의 실패는 결국 출원생의 재범과 성인범죄자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더욱 출원생의 안정적인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에 종합적인 이해와 연구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된 탈비행을 위해서 먼저 그들의 인구학적인 배경, 특성, 욕구 등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소년원 출원생은 매년 2000명을 육박하는 출원생 가운데 남자 출원생이 여자 출원생보다 4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출원 후 욕구조사(조운오, 이유진, 2011)에서 이들이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 서비스로 ‘취업 및 직업훈련과정’을 전체 응답자의 35.0%가 응답하였다. 이는 출원생들이 취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욕구가 높고 사회생활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자 출원생은 책임감과 자립을 기대받는 사회적인 성역할로 인해 학교 복학이나 상급학교 진학보다 취업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후 남자 출원생들이 상대적으로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생활의 경험이 이들의 탈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서 일반 청년들과 달리 소년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출원생은 어린 나이에 출원하며, 학업중단으로 인한 낮은 학력으로 학력의 격차가 크다. Altschuler와 Brash(2004)에 따르면 출원생들은 대부분 자립하기를 원하지만 대다수가 낮은 학력, 기술의 부재 등으로 일반 청년들에 비해 직업을 갖기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취업기회를 얻거나 직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전선에서 출원생이 갖는 불리한 측면은 전문기술 직종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문기술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나이와 학력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소년원도 출원생들이 실제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하여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재원기간동안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업 유망직종의 직업전문교육으로 자동차용접, 헤어·피부미용, 바리스타, 제과·제빵 그리고 카일렉트로닉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출원생은 직업교육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기술직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출원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과 자립생활관, 소년보호 위원 등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출원생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되고 있다. 이로써 출원생의 출원 직후 높은 재범률을 방지하며 나아가 실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출원생은 낮은 자아통제력과 충동성으로 인해 인내력과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은숙, 2006). 하지만 전문기술직의 경우, 직장에서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직급과 진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출원생이 직장생활에서 충동적으로 그만두고 싶은 고비마다 보상물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소년원 출원생의 불리한 조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기술 직종의 직장환경과 그 환경에서의 경험이 출원생의 탈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탈비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최근 탈비행 연구는 비행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닌 탈비행 요인을 활용한 ‘해결’의 방향으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탈비행의 예측도가 높은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탈비행의 예측변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탈비행 변인을 한정지어 비교하였기 때문에 탈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 탈비행 연구의 대상자는 지위 비행을 포함하거나 비행행위가 경미한 비행청소년 또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손순용, 양철호(2009)연구에서도 비행이 심각하며,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출원생의 실제적인 탈비행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Laub와 Sampson(2001)의 탈비행 개념은 단순히 비행과 범행이 없는 중단 상태 혹은 최종단계로서 한 시점이 아닌 시간의 지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비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정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마다 정의내린 탈비행의 기간이 불일치하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조사 시점에 대상자의 탈비행

유무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재비행의 발생과 탈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탈비행의 연구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는 출원생에게 출원 후 탈비행을 탈비행의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탈비행 예측변인들 가운데 특히, 출원생이 출원 후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과 발달적 시기에 맞물려 발생하는 탈비행 예측변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편 소년원 출원생에 관한 연구는 탈비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출원 후 사후보호, 생활실태 또는 욕구조사 등으로 분석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탈비행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일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원생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출원생과 출원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출원생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서 소년원 출원생이라는 소수의 특별한 경험을 한 대상에게 사용하는 질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출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출원생의 사후보호, 재사회화, 사회적응 연구를 들 수 있다. 질적연구를 통해 출원생의 사회적응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조경미, 2010; 이발희, 고윤순, 2012).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출원생의 취업과 직장에서의 적응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응을 위한 경제기반의 마련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전반적인 사회적응과정의 출원생의 취업과 직장에 대한 일부내용들이 구성요소로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거나 탈비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취업과 직장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복잡한 현상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존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조경미(2010)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구분한 유형에 따라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과제들, 다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 또는 직장인으로서 재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퇴원생의 영역의 구체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함을 언급했다. 둘째,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적응유형에서 직장에 취업한 그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취업의 형태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원 후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다양한 요인들 특히 출원생에게 제한된 취업기회, 구직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제언에 따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남자 출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탈비행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탈비행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남자 출원생이 직장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이 탈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남자 출원생이 직장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남자 출원생의 생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밝혀주는데 유용하며, 탈비행 개념의 ‘과정’적 특성과 부합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일정기간의 직장생활을 경험한 소년원 남자 출원생을 대상으로 취업경험과 직장생활을 회고하는 방식의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는 3개월 이상의 직장생활을 경험한 남자 출원생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업무적응기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 2명 중 1명이 입사 후 ‘3개월 이하’ 정도 걸려 업무에 적응했다고 밝혔다(네이버 뉴스, 2007. 08). 이에 따라 남자 출원생이 3개월 내에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하였거나,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남자 출원생을 통해 직장경험에서 탈비행에 기여하는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탈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방식을 통해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이 탈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이 그들의 자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조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밝힐 수 있으며 그 탈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의 정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남자 출원생이 직장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며 그로 인한 탈비행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년원 출원 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업을 계획하는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과 직장생활 중인 남자 출원생을 위한 효과적인 사후지도의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 출원생의 직장생활 가운데 다양한 탈비행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며 탈비행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더욱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며 직장에 취업하고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탈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이 직장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탈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둘째,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해 탈비행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A. 탈비행의 이해

1. 탈비행 개념과 정의

탈비행의 개념은 기존 비행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비행의 종결 혹은 단순한 비행사건이 없는 비행중단상태나 또는 비행의 종결로 범행없음의 최종단계로 정의되어왔다. 이 개념은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상태와 일시적인 시점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그 이후의 탈비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Bushway et al.(2001) 한 개인의 비행경력에 지속기간, 시기, 빈도 등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Maruna(2001)는 탈비행의 개념을 비행에 지속적으로 연루되어 왔던 사람들과 장기간 비행을 금하는 것이라 하여 지속성을 강조하였으며, 탈비행을 단순히 사건이 아닌 비행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Laub & Sampson(2001)는 ‘중단의 임시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범죄경력에 영구적인 종말을 ‘진정한 벗어남’ 또는 ‘종결’로 본다 (Bushway et al., 2001).

이는 최근 청소년 비행과 탈비행의 연구는 생애과정론에서 ‘탈(벗어남)’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탈비행은 일정시간동안 비행을 중단해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벗어남’은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시간에 거쳐 변하는 발달적 과정이며 의미있게 개인의 범죄성이 감소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Bushway et al., 2001). 이렇게 비행의 중단과 범죄의 종결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탈비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Laub & Sampson, 2001)

따라서 탈비행을 ‘비행중단 시점이나 비행횟수의 감소 또는 비행중단기간’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보고,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적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이희연, 2005).

2. 탈비행 요인

Samson과 Laub의 생애과정이론을 통해서 탈비행의 중요한 요인들을 밝힐 수 있었다. 밝혀진 요소들로는 전환점적 사건들, 비행환경과의 단절, 일상 활동의 구조적 변화, 점증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 탈비행자의 주체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탈비행의 예측 요소는 다양하였으나 빈번하게 관찰되었던 공통 요소들은 노화, 결혼 등을 통한 가족 유대, 안정적 직업, 그리고 정체성 변화를 들 수 있다(Laub & Sampson, 2003; Sampson & Laub, 1993).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비행이나 범죄는 가정, 학교, 친구, 직장 등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요인의 회복을 통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성장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충분히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일생의 각 시기마다 그 시기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개인이나 제도 등과 같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사회자본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장기간의 물리적·정서적 투자를 통해 높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있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커지게 된다. 비행으로 인해 잃을 것이 많아지는 소위 ‘순응에의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가 높아지면 비행이 줄어든다(Hirschi, 1969).

생애과정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삶의 사건, 생애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s)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으로 결혼, 취업, 군 입대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삶의 사건이 사회유대를 강화시켜 비행을 중단하여 사회에 복귀를 도운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lder(1998)도 인생의 전환점을 인생과정의 성공적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으로 보았는데, 전환점의 주요한 특징으로 새로운 시작, 자기미래의 재생, 상호적인 접촉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환점은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큰 기회와 잠재적인 전환을 제공해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결혼, 취업, 군 입대 등은 결국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의 감소를 통한 범죄기회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대화하며 출근하고 퇴근하는 행동 등이 습관화되게 되면 이런 습관은 결국 일상생활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틀 또는 구조를 형성해주게 된다. 이러한 애착, 유대, 그리고 일상생활의

틀 또는 구조는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 기능을 담당하여 비행 청소년을 탈비행의 길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사회통제의 주체의 변화로 인해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패턴이 변화하게 되어 나쁜 환경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통한 삶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비행을 중단하게 되는 개인적인 이유를 스스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의 단순한 경험유무가 인생의 전환점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경험유무가 아닌 결혼, 군입대, 직장에서 유대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험에서도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는 결국 탈비행이 어렵게 되고 다시 재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B. 소년원 출원생 관련정책

소년원은 교정교육시설로서 소년원생들에게 발달단계에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기보다 교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 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소년원은 2007년 7월 통폐합을 거쳐 현재 대도시에 10개의 기관으로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 직업훈련내용인 특성화교육 체제로 전환되었다. 정보통신학교, 중·고등학교 교과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키는 인문계 학교, 정보산업학교 등으로 전환하여 전산응용, 건축제도, PC 수리, 피부미용, 제과·제빵 등 취업유망직종의 직업전문교육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직업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에서는 사무자동화, 전산응용건축제도,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전기공사, 건축환경설비, 텔레마케팅, 제과·제빵, 헤어디

자인 등을 교육한다.

출원생의 이러한 직업훈련과정에 관한 관심은 소년원생의 출원 후 욕구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출원 후 출원생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호관찰 감독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서비스로 전체의 35.0%가 자격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필요성과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만족감으로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의 경우 수용기간이 최장 2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9호 처분자들은 수용기간이 6개월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훈련과정상 직업기술을 숙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기초적인 직업훈련과정 수준을 교육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더욱 숙련시키는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은 부족하다. 또한 9호 처분자에게는 10호 처분자에 비해 수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바리스타와 같은 직업훈련과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0호 처분자들에 비해서 제한된 과정과 형식적인 자격증 취득에만 그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출원생의 탈비행과 안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 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최근 2012년 313명이 취업하는데 출원 후의 탈비행과 안정된 사회적응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청소년 백서, 2013)

<표 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직업훈련과정

기관(학교명)	대상	직업훈련과정(직종 13종)
서울소년원 (고봉 중·고등학교)	9, 10호	제과제빵, 사진영상, 매직엔터테인먼트, 한식조리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9, 10호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텔레마케팅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 10호	헤어디자인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9, 10호	헤어디자인, 측량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9, 10호	자동차정비, 자동차용접, 건설기계운전, 건축환경설비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 10호	제과제빵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자동차정비, 자동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 9, 10호	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대전소년원 (대상학교)	7, 8, 9, 10호	-
청주소녀원 (미평여자학교)	8, 9호	-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C. 소년원 출원생의 관한 선행연구

소년원에서 출원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출원 이후 재범률의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생의 연구는 출원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양적연구와 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출원생의 연구는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년원에서 출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처우방법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출원생에게 출원 전부터 출원 후까지 지속적으로 다기관 협력체계가 조화롭게 연계되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출원생에 대한 사후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지선, 2004)

또한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양적연구로는 출원 이후 출원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그들의 개별욕구와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출원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나 성취감이 부족하고, 어디서 어떤 직업훈련정보를 얻어야하는지 모른다고 나타났다(조운오, 이유진, 2011) 또한 탈비행에 성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해수, 이연상, 2013)를 통해 그들의 탈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출원생은 전체 출원생의 1/3수준으로 출원생의 탈비행이 비율이 낮다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원생에게 탈비행 요인으로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와 소속감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생의 욕구로는 경제적인 자립욕구가 강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이나 취득자격증의 활용도가 낮으며 탈

비행에 성공한 취업유형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여전히 재비행 위험요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원생의 안전한 사회적응에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서 안정된 직장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출원생에 대한 재사회화,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는 질적연구로 이루어졌다. 우선 출원생의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재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조경미, 2010) 또한 사회적응한 출원생을 대상으로 본 사회적응과정에서는 특히 기존의 또래집단인 비행친구집단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나타났으며 재범억제와 사회적응에 자각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이발희, 고윤순, 2012) 이는 출원생의 사회적응에 자각과 다양한 경험으로 인생의 전환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출원생과 유사한 비행청소년의 연구에서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에 관한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한 동기부여와 긍정적 사고가 나타났다. 또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재비행의 청소년으로 낙인받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필요하고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는 출원생에게도 직업훈련을 통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훈련을 받는 것을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사회적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출원생의 출원 이후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적응한 출원생들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응하기 전의 일반출원생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취업과 직장생활의 경험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원에서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취업하고, 직장에서의 역동적인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연구가 필요하다.

D. 근거이론

본 연구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기술직종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의 경험구조를 밝히고자 근거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사용한 이유는 현상이 연구참여자가 타인 및 주변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이 그들의 자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왜 그러한가에 관해 관심이 있는 경우 또한,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변인들을 강조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과정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그들의 탈비행에 직장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상호작용과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 행위자를 반응하는 유기체가 아닌 사회와 자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구축하는 행동유기체로서 보았다(Schreiber & Stern, 2001).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들은 행위양식과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회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ead는 한 사회안에서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위가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신념, 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진정한 삶을 탐구하고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Stern, 1980).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하며,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기존의 양적연구방법의 한계성에서 비롯된다. 앞서 말했듯이 소년원 출원생의 선행연구들은 출원이후의 실태를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탈비행 예측변인들에 대한 탐색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행위자의 삶과 행동, 경험세계,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현상과 과정으로부터 행위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경험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인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직관력을 제공하고,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Strauss & Corbin, 1998),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둘러싼 과정과 궤적에 대하여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시도하여 사회적 실재에 대한 실제적 이론뿐만 아니라 형식적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이다(Schreiber & Stern, 2001). 이러한 특성은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데 적합하며, 단지 탐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미개척 연구분야에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다는 장점이 있다.

근거이론의 연구과정은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이론이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

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지그재그 방식을 취하고 분석을 통해 개념과 속성이 나타나면 상위개념인 범주로 발전시킨다.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자료에 포함된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해석이며 분석의 산물이다. 속성은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특성으로 범주를 정의하고 범주에 의미를 부여하며, 차원은 범주의 속성들의 변화하는 범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근거이론방법은 자료로부터 잘 발전된 범주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어떤 연관된 사회, 심리, 혹은 기타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신경림, 2001).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에서의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탈비행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 6명을 선정하였으며 보호관찰 기간(약 6개월)이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였거나,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탈비행이 출원 직후 공식적인 외부통제인 보호관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가자 선정을 위해서 연구자는 출원 후 1번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졌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능했던 출원생과 통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응한 경우, 상담자가 직접 해당지역에 방문하여 출원생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출원생과 합의하여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녹음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 질문 중 응답하기 꺼려지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B. 근거이론

본 연구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들이 직장경험을 통해 탈비행하는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직장경험을 통해 탈비행하는 남자 출원생들이 경험한 내용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상호작용 양상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함으로써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접근 가능한 의

도적인 추출방법'을 사용했다. 소년원 출원생의 경우 출원 후 연락과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한 남자 출원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비행의 기록이 없으며, 직장생활을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유지하고 있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을 선정하였다. 법무부 연구 참여자로서 출원생과 과거 1번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참여자 중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능했던 남자 출원생 중 2명이 먼저 참여하고, 법무부 관련 SNS를 통해 연구 대상자로 적합한 출원생과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여 연구동의를 얻은 3명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선생님들께 연구목적과 내용에 관해 연구수행 동의를 구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탈비행에 성공한 직장경험이 있는 남자 출원생을 추천받아 연구동의를 얻은 1명이 참여하였다. 이들과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에 응한 참여자들에게 대면면담 전 인터뷰 질문을 전달하여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약속날짜에 직접 해당지역에 방문하여 다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재확인 후, 녹음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 질문 중 응답하기 꺼려질 경우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이로써 총 6명의 참여자들에게 서명동의를 얻었으며 만나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지거나 만남이 어려운 경우,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녹음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지 진행하여 총 6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소년원 남자 출원생으로, 연령은 19세가 1명, 20세가 2명, 21세가 1명, 22세가 1명, 27세가 1명으로 평균 21.5세이었다. 입원횟수는 1회가 2명, 2회가 3명, 3회가 1명이었으며 처분명은 9호가 2명, 10호가 4명이었다. 비행명은 대부분 여러 개였으나 대표적으로 보호관찰법 위반 2명, 폭행 및 절도가 3명, 강간, 강도상해가 1명이었다. 입원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장 36개월로 평균 15.3개월이었으며, 출원 경과기간은 최소 7개월에서 약 120개월이었다. 직업분야는 헤어디자이너,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이며, 근무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약 3년 이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번호	연령	입원 횟수	처분	비행명	입원기간 (개월)	출원경과 (개월)	직업 (직장)	근무기간 (개월)
1	20	2	9호	보호관찰법 위반	4	7	미용실	4
2	21	2	10호	폭행, 강간	16	36	자동차정비	6
3	19	1	10호	특수절도	13	14	자동차정비	5
4	27	3	7호	폭행, 절도	18	120	미용실	36
5	20	1	9호	보호관찰법 위반	5	16	제과제빵	15
6	22	2	10호	강도상해	36	19	미용실	24

3. 자료수집 방법

a. 면담 질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면담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였다. 근거이론 자료 수집방법으로 비구조화 면담이 가장 적합하며 이는 참여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한 자료로써 연속적인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근거이론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신경림, 2004).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년원 생활부터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과정에 따라 큰 영역으로 나누어 기초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추가하고 싶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질문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작

성된 질문지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논문을 쓴 석사 2인과 지도 교수님의 자문을 바탕으로 질문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성된 질문지를 연구 참여자와 면담 후 계속적으로 보완 수정하였으며 중점적인 면담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3> 면담 질문지

영역	질문
배경질문	비행명, 입원기간, 입원횟수, 직업훈련과정, 자격증, 등
소년원 생활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 후 어떻게 생활하였나요?
출원 후 취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 취업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직장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은 자신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 직장에서 무슨 경험을 하였나요? ● 직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였었나요? ●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주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탈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요? ● 직장경험으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당신은 어떻게 탈비행하게 되었나요?

b. 면담 실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와 심층면담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전달하였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위의 내용이 기록된 참여자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였다. 참여자들은 1차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심층면접 후 부족하거나 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2차, 3차 추가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소년원 출원 후 어떻게 생활하였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자의 의도보다는 연구참여자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급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과 만남이 편리하며, 한적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형성을 위해 심층면담으로 들어가기 전, 최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다. 연구자는 휴대용 녹음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했다. 또한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엔 소년원 선생님, 생활관 선생님 등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Strauss & Corbin, 1998)을 이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그리고 메모와 도식을 이용하였다. 코딩(coding)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을 말한다. 그 첫 단계로 개방코딩은 자료를 통해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그리고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코딩은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작업이다. 메모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 해석, 계획 주제, 가설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a.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념들을 이끌어내고 개념들을 포괄하는 범주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녹취한 면담 내용을 한 줄 씩 분석해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있는 진술들에 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찾아 명명하였다. 개념의 명명은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며,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해석하여 명명하였다. 명명화 작업을 통해 발견된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비교분석을 하였다.

b. 축 코딩

축 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축 코딩을 하는 목적은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고 연관시키는 것이다. 축 코딩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이 중심현상과 연관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를 밝혀낸다.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맥락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 중심현상은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생각을 말하며,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내포된 구조적 조건 중의 하나로 특정 상황에서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의도적인 행위나 반응을 의미하며,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즉, 범주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해 연결된다.

c.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발전된 범주들을 이론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는 추상적인 용어로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 중인 모든 사례들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검증하여 유형을 발견하고 자료의 체계화 및 연관성을 강화하여 근거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설적 관계와 정도의 영역을 관계진술로 제시하고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개요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며 이를 토대로 관계 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적 진술을 통한 이야기 윤곽을 제시한다.

선택코딩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를 끌어내는 힘을 갖고 자료의 윤곽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핵심범주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념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찾기 위해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서술적으로 이야기 윤곽을 적어보았다.

또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간의 전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자료 분석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은 연구자가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녹취록 13개를 읽은 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범주화하면서 코딩 작업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줄 단위분석을 사용하여 구절마다 잘라내어 분류해보고 단어마다 자세히 검토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문장이나 문단 전체를 분석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중심 생각을 확인하며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코딩하였다.

5. 자료분석의 타당도 평가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양적연구와는 다른 질적 연구 고유의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신경림 외, 2005). 질적 연구는 진실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Lincoln & Guba,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의 네 가지 평가기준에 기초한 연구의 엄밀성을 추구했다.

첫째로, 진실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 동의를 얻기 전 연구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참여자들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또한 개별적이고 적극적인 면접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 이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연구 참여 전에 충분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접 기간,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자 서명을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내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결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과 면접과정에서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연구과정에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로, 적합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남자 출원생과 자연스러운 라포형성을 위해 참여자와 1번 이상 만남이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 면담 전 근황을 탐색하고 충분한 통화로 초기면접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소년원 출원생에 관한 뉴스기사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의 소년원 생활과 출원 후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

며, 법무부 용역연구의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여러 소년원을 방문하였으며, 소년원 선생님들과 출원생의 사후지도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출원생들을 직접 만나 출원 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로, 일관성은 양적연구에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자는 우선 면담 준비단계에서부터 질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학습하였으며, 근거이론의 적용을 위해 질적 연구와 근거이론 워크샵에 수차례 참여하였다. 또한 면담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 방법으로 석사논문을 쓴 연구자 2인과 지도 교수님, 관련 연구교수 1인의 조언을 참고하였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외부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연구결과의 평가와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였다.

넷째로, 중립성은 연구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증성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양적연구의 경우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질적 연구의 경우 앞의 세 가지 기준이 확립되었을 때 도달된다(Guba & Lincoln, 1981). 중립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수집된 인터뷰 기록을 수정 없이 그대로 파일에 담아 상황에 대한 왜곡 없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삼각측정방법(triangulation)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터뷰 자료를 다수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적 연구논문을 쓴 석사 2인, 교수 2인과 더불어 연구 과정 감사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6. 질적 연구의 윤리

연구 참여자의 생활환경속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보호문제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읽고 동의사인을 받았다. 인터뷰 질문 중 응답하기 꺼려지는 경우 거부할 권리를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 도중에도 참여 거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보호기관과 생활관의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담당 선생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하였으며 직접적인 면접을 통한 연구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모두 참여자 번호로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A. 개방코딩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근거로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들을 범주화 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95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4>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된 비행으로 소년원 입원을 함 자유가 없는 소년원 생활은 갑갑함 출원 후에도 어린나이의 갈피를 못 잡음 	반복된 비행으로 장기간 소년원생활을 함	반복된 비행으로 세상과 단절됨	인 과 적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들과 달리 학창시절이 없음 대인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침 	소년원 생활로 사회적 기술을 익히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집단속에서 다른 인식을 함 비행 친구들과 놀고싶은 마음이 고착화됨 	비행습관에 물들어져있음	고착화된 비행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백 라 적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 버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일자리를 구함 일자리를 쉽게 그만둠 	직장을 별 의미없는 '수단' 으로 여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에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름 찾감에 충동적으로 일을 박차고 나감 	여전히 충동을 제어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의 부재 및 무관심함 가족의 지나친 기대와 압박 	가족의 울타리밖에 서 있음	홀로서기의 막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선택한 타지생활의 외로움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낌 	주변과 섞이기 어려워 외로움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출신은 일급비밀 • 소년원 출신을 숨기는 것을 합리화함 • 타인에 의해 소년원 출신이 밝혀짐 	소년원 출신이 드러날까 불안함	사회적 편견의 난관을 넘기 버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출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 • 직업선택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힘 • 동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낌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와 불신을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하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함 • 소년원의 모범적인 생활에 대한 인정받음 	주위의 과도한 인정과 기대를 인식함	빠른 변화의 '기대'가 오히려 조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와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긴장함 • 책임감과 역할에 따른 부담감 • 포기하면 실패자라고 스스로 압박함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대받는 처지로 인해 억울함 • 눈치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 	새로운 구도 속에서 느끼는 억울함	직장에서 어우러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들과 소통 및 교류의 어려움 • 동료를 가식적으로 바라봄 	동료관계의 거리감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의 흔들림 •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화함 	자칫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 의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	중심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간 줄'에 대한 두려움 • 이 일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자각함 	막다른 길에 서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에서 취업 및 복지혜택을 제공 받음 • 지역사회 도움 통해 취업기회 얻음 	소년원의 도움으로 안전한 자립환경이 조성됨	<p>닫고 일어설 디딤돌이 마련됨</p>	<p>중 재 적 조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함 • 소년원선생님의 끊임없는 응원과 위로받음 	소년원 선생님의 지속적인 격려로 동기부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이 불가피함 • 경제적 자립의 내적동기가 올라옴 	경제적 활동 및 자립압박을 받음	<p>직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만이 살길이라고 인식함 • 기술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음 	기술습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직에는 무리 없이 취업이 가능함 • 직장구조가 만족지연에 도움을 줌 • 직장을 기술훈련의 장으로 인식함 	직장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장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으로부터 통제와 관리를 받음 • 생활관에 소속되어 생활지도를 받음 	암묵적인 통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함	<p>겹겹의 안전망으로 보호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속으로 보호관찰을 수월하게 이수함 • 직장생활로 보호관찰 이수의 배려를 받음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통제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으로 가족갈등이 해소됨 • 가족과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편안해짐 	취업으로 가족갈등이 감소됨	<p>가족 및 친구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비행친구와 단절을 결심함 •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비행친구와 멀어짐 	비행친구와 관계가 단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과 달라진 비행친구들의 모습을 인식함 • 차츰 좋은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 	친구관계의 변화로 비행유혹이 감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에 대한 신뢰감으로 소년원 출신을 밝힘 • 동료에게 부정적인 예상과 달리 수용과 이해받음 	동료에게 자기개방으로 수용받음	좋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함	작용 / 상호 작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들에게 실력향상을 인정받음 • 진정한 동료가 됨 	동료와 친밀한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의 진심어린 격려 및 조언 • 동료관계의 유대감은 버팀목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먼저 다가감 • 동료의 일을 나서서 거들어줌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나섬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애를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처세술 • 동료와 적절한 거리를 둠 	동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 목표실행의 가능성에 따른 의욕이 향상됨 •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단념함 • 새로운 인생의 다짐을 스스로 상기함 • 기대부응을 위해 각오함 • 이 악물고 버텨 	<p>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짐</p> <p>이 악물고 버텨</p>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노력함 • 맡겨진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함	성장의 욕심으로 나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습득을 위해 잔피를 부림 • 동료와 라이벌 의식으로 경쟁을 함 • 적극적으로 질문을 함 	동료를 통해 열정적으로 기술을 익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에서 짹짹함이 강점으로 발휘됨 • 기술습득의 완벽성이 강점으로 작용함 	성격특성이 강점으로 드러남	일의 성취와 재미로 '맛' 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한 현장에서 오는 즐거움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만족감 	일의 즐거움이 몰입에 원동력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일해서 번 월급의 값진 의미 • 월급보다 더 큰 보상이 되는 기술 향상 	보상에 따른 자기만족감	직업의 안정기에 진입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으로부터 실력향상을 인정받음 •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기술을 몸에 익힘 	기술습득의 실제적인 증거를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에 따른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 당장 하기 싫은 일도 인내함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됨	삶의 주인의식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가치로 전환이 이루어짐 • 목표실현을 위한 주도성이 증대됨 • 새로운 생활규칙에 익숙해짐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음 •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스스로 대견함 • 주변에서 나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봄 	예전과 다른 나를 발견함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줌 • 동종업계 후배들을 교육 및 지도함 	멘토로 역할이 전환됨		

1. 반복된 비행으로 세상과 단절됨

a. 반복된 비행으로 장기간 소년원생활을 함

어린 나이부터 참여자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비행을 반복해왔다. 그들은 다양한 비행사건으로 위탁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다가, 더 나아가 강도상해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소년원에 입원하였다. 소년원 출원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재비행이 습관으로 젖어들면서, 그것은 차츰 그들의 생활이 되어갔다. 그 동안 자유와 방종을 마음껏 누렸던 참여자들에게 소년원의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생활은 갑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유가 속박된 그 곳에서의 ‘시간’은 너무도 느리게만 흘러갔다.

워낙 일찍 소년원에 들어갔던 참여자들은 출원한 후에도 여전히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랜 비행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또래들의 정상적인 삶과는 단절된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한 참여자는 출원 후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면접을 보기 위해 나름대로 꾸몄던 모습이 허름한 옷과 까까머리였음을 회상하기도 했다.

2009년도인가? 보호관찰위반으로요 그때는 6호 처분, 이걸 위탁이구요 소년원 10호 2번. (비행명은) 엄청 많은데 한 게 강도상해. 그게 제일 커가지고 한 3년 정도. ... 처음 6호 받았을 때 다른 시설 갔다가 나와서 사고쳐서 10호 갔다가, 나왔는데 여기(생활관) 있을 때 사고쳐가지고 다시 소년원 가서 또 보호관찰 6호를 받았어요. 또 이리 왔다가, 또 사고쳐서 소년원 춘천으로 가고(참여자 5)

정말 허름한 티에다가 바지, 나름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까까머리, 그리고 밀고 나와서 까까머리 이래가지고가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갔죠.(참여자 4)

b. 소년원 생활로 사회적 기술을 익히지 못함

참여자들은 소년원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의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특히 누구나 가는 중·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거나 졸업하지 못하여 평범한 학창시절의 추억과 관계를 얻지 못하였다. 보통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고, 관계를 연습하는 기술을 익히지만, 이들에게 그런 기회는 없었다. 한 참여자는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며 그들만의 평범함과 학창시절에 공유할 수 없었다. 과거 자신의 다른 경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후회하였다.

또한, 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은 곧, 다양한 대인관계를 접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소년범,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뿐인 경직된 관계뿐이었다. 이들은 직장에 취업은 했지만 인간관계를 책을 통해 정보로만 배웠기 때문에 동료와 소통하는 것에 애를 먹었다. 사회에서 실제 대인관계는 책과는 내용이 사뭇 달라 무척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으로써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후회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학교 잘 다니고 그냥 평범한 애들처럼 학교 졸업하고 대학가고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빠르게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졸업하고 애들하고 졸업하고.. 저는 애들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데 저는 하나도 없으니깐 그런 게 좀 큰 거 같아요.(참여자 6)

소년원에서 책만 보면서 인간관계 책 보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대해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랬는데, (직장에서) 그게 안 나오고 당연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참여자 1)

2. 고착화된 비행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a. 비행습관에 물들어져있음

소년원 생활과 출원 후, 이들의 모습은 소년원 입원전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여전히 예전에 비행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비행친구들과 놀 때가 가장 재밌고 그런 사고치는 맛에 익숙해져 있었다. 비행친구들은 여전히 중요한 학업과 일보다는 노는 것에 빠져 있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하기도 했다. 비행친구들의 모습에 잘못됨을 인

식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무리에 환멸을 느끼거나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아무리 소년원에서 교육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지만 짜릿한 비행의 ‘맛’은 잊지 못했다. 과거의 골목대장, 영웅처럼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비행 친구들이 그리웠다. 비행친구들이 일보다 놀자는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는 자신의 깊이 뿌리박힌 비행의 잔재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개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개네 있는데로 갔는데 가서 거기 편의점을 샀어요. 갔는데 친구가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제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뛰어가요 어디가냐, 저도 같이 뛰어갔죠. 그러니깐 그 계산을 하는데 카운터 옆에 돈 정리를 해놓은 봉투가 있었어요. 지퍼 백에다가 개가 그거를 들고 나온거예요.(참여자 2)

남들은 다 사고 안 치는 게 쉬운 건데 저희는 일단 사고를 쳤었고 좀 그 맛을 알잖아요. 그니깐 이제 또 맛을 또 아니까(참여자 6)

b. 직장은 별 의미없는 ‘수단’ 으로 여김

이들은 출원 후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였으나 단지 쉽게 돈을 벌기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적성, 능력, 가치관 등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집과 가깝기만 하면 되었다. 일자리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미안한 마음에 용돈벌이 식으로 구하는 것이었고 그러다보니 일은 금방 지겨워지고 도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일주일, 한 달만에 쉽게 그만두었다.

알바천국이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알바는 하기 싫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배운 건 자동차고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알바 이거를 봤는데 딱 뜨더라구요. 집이랑 가깝고 그래서 바로 전화해보니깐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취업했어요. ... 그냥 돈 버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깐 이 직장에 들어와서 뼈를 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간 게 절대 아니에요. 잠깐 돈버는 (참여자 3)

가서 바로 일하려고 알아봤는데 집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부터 해가지고, 당일 날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일 날 바로 가서 면접보고 바로 또 출근했어요. ... 디자이너가 꿈이 아니고 수단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단,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 그래가지고 디자이너 못 되도 다른 거 하면 되지, 이게 쉽게 되었던 거예요.(참여자 1)

c. 여전히 충동을 제어하지 못함

이들은 예전과 같이 충동적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환경은 직장으로 바뀌었지만 참여자들의 충동적인 오랜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강한 충동성이 오히려 자신들을 통제하였다. 직장에서 이들의 위치와 역할은 수직구조에서 맨 아래에 있는 막내였다. 그런데 사장님과 상사가 야단을 치거나 욕을 하면 표정관리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순간 폭발적으로 화가 나 일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라 어쩔 줄 몰라했다. 직장에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핏김에 여기 말고 일 한 곳이 없나 라는 자만감이 넘치는 생각을 하였다.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거침없이 말을 하고 가운을 던지는 등 일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화나면 아이씨 안하면 되지 내가 여기에서 뭐한다고 이렇게 내가 혼나면서 배워야 되냐고 나 안할랍니다, 집에 갈게요. 이려고 나간적도 있고 (참여자 4)

소장이 저한테 왜 말이 싸가지가 없냐, 그래서 저 그때 바로 가운 벗어던졌어요. 저 안한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아랫사람 윗 사람 다 총 공격해서 저한테 이러는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내가 나가지, 소장님도 신입형보고 나가라는 소리 안한다면서 나갈게요. 가운던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갔거든요.(참여자 6)

3. 홀로서기의 막막함

출원 후에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자립이었다. 자립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돈을 버는 경제적인 자립과 더불어 건전한 생활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하는 압박감에 힘들어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점차 이들은 혼자 해내야 될 엄청난 과제의 압도되어 더욱 막막해졌다.

a. 가족의 울타리 밖에 서 있음

출원 후 참여자들이 가족들에게 되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계시지만 반복된 비행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관심도 작은 기대조차 없었다. 반면, 가족의 지나친 기대는 압박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었다. 한 참여자는 아버지와 마지막 약속으로 생활은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자신의 작은 행동에도 아버지의 과민한 반응에 스트레스와 조급함을 느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안정된 울타리 안에 존재하지 못했고, 그저 가족의 울타리 밖에 서있을 뿐이었다.

부모님이요? 어.. 백부모님게세요. 어.. 일단 백부모님들이니깐 크게 터치는 없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저는 잠자고 제가 알아서 밥 차려먹고 씻고 그거만 하니깐 별다른 터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어디 안 나가냐, 이런 터치도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는거죠. 관심이.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이런 거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중학교 때 부터(참여자 6)

마지막이라고 처음에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집이지만 사회처럼 아버지도 제 행동 하나하나에 뭐라도 판단을 내리실 것처럼 냉정하게 긴장 속에 지냈었거든요. 진짜 잘못을 하면 크게 나무라서 애초에 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 바로 옆에 계시니깐 다 지켜보고 계시니깐 다 보면 무슨 생각하실까 이게 또 생각이 드니깐 그게 또 부끄럽고 스트레스고 (참여자 1)

b. 주변과 섞이기 어려워 외로움을 느낌

이들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자신으로 스스로 취업하고 타지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한 참여자는 타지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없이 항상 혼자였고, 혼자 외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아팠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에 이미 견고하게 형성된 관계에 새롭게 소속되는 것이 어려워 소외감이 들었다. 이들은 타지에서도, 직장에서도 어울려지지 못해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많이 외롭고 부러웠지, 많이 부러웠죠. 부모님들하고 다니는 거랑.. 외롭기도 많이 외롭고 위로 받는 거나 안기고 싶은 그거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이 아파요 그게(참여자 4)

참 마산이랑 창원에서 일을 잘 한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되게 외롭잖아요, 놀고 싶고 진짜 애들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일 마치면 기숙사가서 자야되고 힘들잖아요.(참여자 6)

4. 사회적 편견의 난관을 넘기가 버거움

출원 후, 이들에게 가장 높은 사회적 난관 중에 하나는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였다.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가 생각보다 무서웠고, 늘 신경 쓰였다. 이들은 사회적인 편견이 주변인들의 색안경으로 되기도 했고, 때로는 높이 치솟은 옹벽처럼 단단하고 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으로 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편견이라는 난관을 넘어보려 하지만 참 버거웠다.

a. 소년원 출신이 드러날까 불안함

스스로 소년원 출신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혹시나 차별을 받진 않을까 꾀꾀 숨기는 일급비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직장에서 과거, 소년원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침묵

하거나 주제를 돌리면서 대처하였다. 또는 소년원 출신에 대해 숨기는 것을 굳이 말해야 하나, 지나간 과거라며 스스로 합리화하였다. 한 참여자는 동료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궁금하게 되면 밝혀질까 먼저 선수를 쳐 관련 없는 이야기를 모조리 해버렸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한 참여자는 좁은 지역사회의 얽혀진 관계로 사장의 귀에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다.

일급비밀이었죠. 일급비밀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이 길어지지 않게 말이 새어나오니깐 ... 내가 먼저 오픈해버리는 거죠. 자꾸 궁금해지면은 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야되니깐.. 애초에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것을 ... 중요한 거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었고 정말 철없는 아이들은 갔다왔다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때 저는 부끄러웠고 말하기도 싫었고(참여자 4)

만약에 어차피 과거인데 이 사람이 과거가 그렇게 크게 별로 안 궁금할 건데 그래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못 느껴가지고 이야기를 안했었어요. 말해야 될 걸 숨긴 건 아니니깐 안 말해도 될 거였으니깐 말을 안 했어요.(참여자 1)

b.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와 불신을 인식함

이들은 직장뿐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사회는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밝히면 자신들의 행동에 ‘역시나, 또’ 라는 부정적인 답으로 색안경을 쓴 채 바라보고 있었다. 출원 전, 이들은 직업군인을 꿈꾸고 지원하지만 신원조회에서 여러 번의 고배를 마셨다. 점차 고정관념 앞에서는 무기력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한 참여자는 부사관을 지원하지만 신원조회에서 막히게 되었고 이것이 줄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자꾸 놓치고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동료의 시선에서 소년원출신을 의식하고 경계하며 초면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아직까지 사회는 그런 거 같아요. 소년원 다녀온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 또.. 또 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불안해하고,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신뢰가 없죠.(참여자 4)

원래는 부서관 하려고 했었거든요. 신원조회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원조회에서 막힌다 해서.. 되게 그저 그랬는데 좀.. 줄 한번 놓치고 미끄러진 느낌? 손에 힘 풀린(참여자 1)

6. 빠른 변화의 ‘기대’가 울무로 조여옴

참여자들은 대부분 소년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소년원 선생님에게 인정과 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출원하였다.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이들에게 출원 후 생활도 변함없이 모범적이고, 빨리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였다. 이들은 너무 거대해진 기대감을 실제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막중한 부담으로 다가왔고 점차 울무가 되어 스스로를 압박하고 깊숙이 조여왔다.

a. 주위의 과도한 인정과 기대를 인식함

이들은 소년원에서 생활을 잘했고, 직업훈련에도 반에서 1~2등을 하며 모두에게 각광받는 아이였다. 소년원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1~2등하는 아이를 기대하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과 인정받는 것에 감사하고, 좋았지만 엄청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스스로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그 안에서 알게 된 선생님들은 나가서는 잘할 수 있을 거다, 기대감이 좀 컸죠. 안에서 제가 그렇게 생활을 못한 것도 아니고 생활을 잘했으니깐 기대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 부담도 되죠. 이렇게 저를 관심 있어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깐 좋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못해버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참여자 6)

저희 반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었거든요. 커트도 제가 제일 먼저 입문하고 제가 아이들을 잘라줄 정도로 정말 LTE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진짜 ‘너가 나가면 잘할 거다.’(참여자 4)

b.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씀

이들은 자신을 향한 기대감에 충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곧 직장생활로 증명보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 일이 익숙치않아 서툴렀지만 자신을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들은 스스로 실수하면 안 된다, 여기서 잘 해내지 못한다면 실패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 참여자는 혼자 알아서 잘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자신의 이미 짙은 가방에 짐을 더 넣어 가져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제가 주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했었잖아요. 아 00이 되게 잘할거다. 되게 잘한다고 진짜 큰 부담이었죠. 여기서 실수하면 어쩌나 ... 첫날에 전부다 거의 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막 눈빛이 느껴지는거예요. 기가 죽었어요. ... 거기서부터 눈빛들이 그것도 모르냐? 그런 눈빛으로 그래가지고(참여자 6)

자기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많았던 거 같아요. 알아서 해야된다는 게 조금 짙은 가방에 자꾸 짐을 더 넣어서 가져갈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정이 빡빡한데 더 해야되는 무거워지는 느낌, 갑갑하고(참여자 1)

7. 직장에서 어우러지지 못함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본 경험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환경인 직장에서 관계에 낯설어하고 과거의 잘 나갔던 위치에서 새로운 구도는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다. 또한, 직장 동료관계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못했다.

a. 새로운 구도 속에서 느끼는 억울함

이들은 동료들에게 서툰 실력으로 편찬 받으면서, 항상 잡일을 도맡아 하지만 홀대 받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가 예전과 비교되어 더욱 서럽고 억울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직원으로, 막내로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눈치가 부족하였다. 이들은 점차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자존심에 눈치보는 것도 싫어 낮은 구도가 불편해졌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일 주일에 한 번씩 울었어요. 왜? 서러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열 받아서. ... 여기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바르고 혼나면 혼내면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깐 저녁에 일 마치고 걸레질하다가도 서러워서 혼자 화장실에서 울 때가 많았거든요.(참여자 4)

말을 안 하는 거. 성격? 인간관계? 그런 거 그냥 눈치보이잖아요. 사장님이 말을 안 하니깐 내가 뭘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사장님은 일하고 있는데,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치보이는 게 좀 싫었죠.(참여자 3)

b. 동료관계의 거리감을 느낌

이들은 사회적인 눈치와 더불어 관계기술에서도 미숙하였다. 동료들과 상호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점차 일방적이거나 필요에 의한 대화로 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대화가 단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게 따뜻하고 잘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동료의 모습에 혼자 실망하며 회의감을 느꼈다.

누가 뭘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줘요. 자기도 뭐라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고 아 맞나, 이려고 끝나고 이러니깐 되게 대답한 사람 썰렁해지게 그러더라구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가니깐 대화가 안 돼요.(참여자 1)

사장님은 트리플 A형이에요. 화나면 말을 안 해요. 뭔가 저는 누군가한테 그 분은 리더고 같이 사람인데 리더가 막 지시를 해주고 이래야하는데, 화나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런 점이 힘들더라구요.(참여자 3)

8.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에 갈팡질팡하는 마음과 비행 혹은 탈비행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 십번씩 달콤하고 익숙한 마음들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으며 겨우겨우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으로 매달리고 있었으나 여전히 불안하였다. 특히 이 선택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중요하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a. 자칫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 의지

이들은 출원 후에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에 강했던 의지는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스스로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혼란스러웠다. 한편 지금처럼 어렵고 고생하는 길이 아닌 익숙하고 쉬운 길의 유혹이 너무 강렬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포기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합리화하며 점차 예전의 것의 향수를 느끼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장시간의 수고로 힘들게 적은 돈을 버는 것과 폼나게 노는 친구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고비마다 돈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하였다.

나와서도 다르게 하면 이제 나왔다 되면서, 이제 나왔으니깐 하면서 뭐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니깐 이물질 같은 게 내 마음에 낄 거 같고, 조금 조금씩 틀어지면 확 커질 것 같고 조금 일그러지면 확 틀릴 거 같고 이런 느낌이, 필이 있어가지고(참여자 1)

서빙해서 한 달에 180~240까지 받거든요?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서갓고 일하는데 100 이런 거 받아가지고 친구들은 옆에서 뼈까번쩍 잘 놀고 그러다보면 부럽기도 하고 고민이 많죠. 배울 기회는 같 길은 먼데 내가 언제까지 이 돈으로 버텨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니깐 (참여자 4)

b. 막다른 길에 서 있음

이들은 예전의 것이 그림고 강렬한 유혹이 자신을 향해 손을 뻗지만, 재입원으로 단절된 생활과 그로 인한 많은 기회들을 놓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이제는 미성년자의 딱지를 떼고 성인으로 범죄에 따른 처벌인 ‘빨간 줄’을 두려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과정을 통한 훈련받은 기술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기술을 활용한 취업이나, 재비행 혹은 성인범죄자냐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때는 미성년자고 소년처분으로 해서 죄를 좀 작게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잖아요. 나왔을 때도 성인되기 얼마 안됐을 때고, 이제 성인 되서 또 사고를 치면 또 빨간 줄도 생길테고 더 안 좋을 걸 아니깐..(참여자 6)

할 게 이거밖에 없고 이거 그만두면 당장 할 게 없으니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낫지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고 이런 일보다는 아무래도 나으니깐 제 상황에서 나왔던 걸 선택한 거 같아요.(참여자 3)

9.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마련됨

참여자들은 출원 후 변화의 의지가 강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안정된 터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동기부여를 지속시키기 위해 소년원과 기관에서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자신을 오래 지켜본 소년원 선생님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이들은 무엇인가 시도해볼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a. 소년원의 도움으로 안전한 자립환경이 조성됨

이들은 소년원과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회복을 위해 취업, 복지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생활관 연계, 장학금과 같은 복지혜택 그리고 취업정보, 동행면접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이들이 앞으로 자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면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한 참여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이었으나 소년원 선생님이 주택청약, 희망키움통장 등 복지지원서비스 정보를 알려주셔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

선생님이 주택공사 그런 자리에 주택청약 이런 것도 알려주셔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게 좀 컸고, 소년원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생활비에 보태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지원해주시고, 찾아와주셔서 생필품도 챙겨주시고 이랬거든요. 부담이 좀 많이 덜어지긴 했었어요. 부담을 좀 많이 덜어주셨어요.(참여자 1)

알아보니깐 용인에 있는 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할 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면접보러 가서 면접에서 합격되고 취직이 된 거예요.(참여자 2)

b. 소년원 선생님의 지속적인 격려로 동기부여됨

소년원 선생님은 출원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지켜봐주셨다. 소년원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준다는 것 자체에 이들은 힘이 나고, 잘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취업되었을 때도 누구보다 축하해주셨고, 직장생활에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위로로 이들은 더욱 감사함을 느꼈다. 소년원 선생님은 누구보다 특별했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다. 한 참여자는, 선생님께서 타지에서 자신을 만나러 2주마다 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한 시간 넘게 통화하며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항상 연락을 꾸준히 해주셨거든요. 바쁘신 거 아는데도 한 시간~한 시간 반 쯤 이렇게 통화해주시고 그렇게 관심 쏟아주셨다는 게 물질적인 도움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 그건 진짜 힘이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1)

좋은 말씀이나 응원 많이 해주신 거는 *** 선생님이나 ### 멘토 쌤이나 거의 맨날 전화왔어요. 잘하고 있나 저 취업 축하선물로 갑자기 신발 사들고 와주셨어요 ***쌤이.
(참여자 6)

10. 직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

출원 후의 일자리는 이들에게 단지 돈을 벌기위한 수단에 그쳤지만 점차 새로운 의미로 변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했으며, 자신들에게 갖춰진 자원은 기술밖에 없는 제한된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기술을 활용하는 직장으로 취업은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이 오히려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는 새로운 장임을 자각하며, 직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실감하였다.

a. 경제적인 활동 및 자립압박을 받음

출원 후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일을 했지만 점점 자립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공백과 가정의 가장이라는 외적압박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강한 욕구라는 내적압박으로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였다.

제가 돈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용을 배우고 싶었고, 먹고 살려고 여기서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깐 생활비 같은 거는 나머지 지원은 아예 없으니깐, ... 저 부모님 안 계세요.(참여자 5)

나가서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 맨날 일 한다 해도 일 주일하고 그만두고 한 달하고 그만두고 그러니깐 알바다 보니까 정확하게 엄마한테 돈도 받기도 그러고 알바를 하는데 조금 조금씩 하고 저 돈 필요할 때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랬는데(참여자 2)

b. 기술습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함

사회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년원 훈련과정을 통해 배운 기술을 활용한 취업뿐이기 때문에 기술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예전과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보다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적극적

으로 구하였다. 한 참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직장이라는 나은 선택이 없기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생각난 게 소년원에서 배운 기술이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갖고 설마 또 하겠나 들었는데, 일단 내가 가진 기술이고 하니깐 애(기술) 갖고 어떻게 해보자 한 거예요.(참여자 1)

처음에 일을 했어요. 그냥 자동차를 거기서 배웠으니깐 고향에 가가지고 튜닝샵에서, 저도 자동차과 나왔고 한 게 자동차밖에 없으니깐 ... 제 상황에서 이 일보다 더 나은 건 없으니깐 알바를 하면 알바생 될 바에 일이 나오니깐 했던 거 같고 계획 이거를 그만 두고 당장 뭘 할지 계획이 없으니깐 계속 버티고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3)

c. 직장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장이 됨

출원 후 이들에게 소년원출신의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대부분의 출원생은 중졸, 고졸의 학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소년원에서 훈련받은 기술과정과 취득한 자격증으로 무리없이 취업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전의 오랜 습관으로 충동성의 조절과 인내하는 것에 취약하지만 이를 정기적인 레벨테스트, 승진 등을 통해 중간마다 보상을 받으며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는 구체적인 목표와 도달시점이 명확하여 스스로 훈련 과정을 인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자격증 수준의 기본실력을 넘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 훈련의 장은 새로운 경험으로 이들에게 재미와 기술적인 자원을 채워주었다.

실습 쪽, 정비, 튜닝 쪽으로 가면 그런 게 덜한데 거의 (학력을)안 봐요. 그런 거 학력이나 그런 걸 안 봐요. 그냥 기술력만 있으면 돼요. ... 선팅을 해 보았냐, 선팅을 할 줄 아느냐, 이쪽에 일을 얼마나 해 보았냐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물어 보시고 저도 자격증이 있고 하니깐 사장님이 그거에 꽂힌 거 같아요.(참여자 2)

(테스트)스케줄이라는 게 있으니깐 목표처럼 그런 게 중간 중간 중간목표처럼 그런 거 같았어요. 계속 하나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뭘 좀 얻고 아~ 했구

나, 이런 걸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쪽~ 하면 지루해하는 스타일이어서(참여자 1)

11. 껍질의 안전망으로 보호받음

이들은 가족, 기관이나 보호관찰, 직장 등에서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로 비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출원생의 신분으로 출원 후 최소 6개월의 공식적인 보호관찰을 이수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가족과 생활관, 직장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a. 암묵적인 통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함

가족들 또는 생활관에서 이들의 재비행을 염려하여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특히 생활관의 경우 공동생활로 규칙적인 생활 스케줄과 일정한 규율을 지켜야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비행친구들과의 유흥을 통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패턴이 형성되는 시작이 되었다.

저는 일주일정도는 밖에서 놀 줄 알았어요. 부산에서 나오자마자 데리고 가시더라구요 형한테 막 화를 냈죠. 뭐하는거냐고, 안된다고 너 내일부터 당장 일해야한다고, 나 이제 나왔는데? 어쩔 수 없다면서 가서 바로 일했죠. ... 형이 저를 일을 시켰으니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또 뭐하고 있었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아니면 또 저 재범해가지고 들어가 있을 수도 몰라요. 차라리 형이 저를 잘 잡아줬으니깐 그래서 더 형한테 고맙죠.(참여자 6)

마지막이라고 처음에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집이지만 사회처럼 아버지도 제 행동 하나하나에 뭐라도 판단을 내리실 것처럼 냉정하게 긴장 속에 지냈었거든요. 진짜 잘못을 하면 크게 나무라서 애초에 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여자 1)

b.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통제를 받음

이들은 출원 후 보호관찰을 일정기간동안 이수해야 하지만 생활관과 직장의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보호관찰도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규칙적인 직장생활로 무리한 통제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권위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점검으로 이들의 생활에서 최소한의 통제는 이루어졌다.

여기 생활관에 있으면 거의 출석을 안 해요, 출석을 안 하고 맨날 일만 다니고 집 들어가고 보호관찰 받는 거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잘못만 안하면 출석도 안하고 한 달에 한번. 생활관은 또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보호관찰소에서 와서 상담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편하죠.(참여자 5)

보호관찰소에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다 어떻게 조율이 안 되겠나, 그러면 너 같은 경우는 저녁 몇 시까지만 자야지 다음날 출근할 거 아니냐, 그 대신 집에 오고 연락하고 전화 받는 거 6개월인가 제가 받았어야 했는데 저는 3개월 만에 끝! 끝났어요.(참여자 4)

12. 가족 및 친구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

이들이 직장에 취업하게 된 이후 가족과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주는 관계의 안정화로 인해 이들은 점차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직장은 기존의 불안정한 생활과 관계로부터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였다.

a. 취업으로 가족갈등이 감소됨

처음으로 제대로 된 취업과 안정된 직장생활로 인해 가족들도 안심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더욱 자신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변화가 나타났다. 자신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는 동기와 좋아하시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또는, 이들은 타지생활로 인해 물리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

가족들은 일단은 정말 좋아했어요.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아했고 ... 첫 번째는 엄마가 좋아하니깐 좋더라구요. 이제는 정식으로 꾸준히 일을 하니깐 엄마도 좋아하더라구요.(참여자 2)

괜찮아요, 이제. 집에서 원래 중학교 때도 1~2년 밖에서 생활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익숙해요. 제가 멀리 가서 일한 게 좋았던 게 일단 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싫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6)

b. 비행친구와 관계가 단절됨

이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변함없는 비행친구들의 관계에 회의감을 느꼈다. 이들은 이 관계로부터 자신에게 득은 없고, 오히려 해만 될 것이라는 문제적인 인식을 하였지만, 완벽히 비행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부족했다. 또는 이들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비행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만나면 술 먹고 패턴이 늘 거의 비슷하거든요. 술 먹고 그냥 술 먹고 맨날.. 짬박질도 하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나중에는 몇 번 볼 건데 그냥 만나지 말자 생각을 했어요, 망가질 거 같아가지고. ... 이직하면서 안 만났어요. 직장 옮기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니깐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이 일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깐 만날 시간도 없었고(참여자 5)

부산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깐 친구들이 아무도 놀고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내고 ... 창원이나 마산이나 멀리서 일을 한 게 잘한 거 같아요.(참여자 6)

c. 친구관계의 변화로 비행유혹이 감소됨

과거의 함께 비행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철이 들고, 정신을 차려 변화하고 있었다. 비행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재입원 또는 성인으로 강화된 처벌을 의식하였고 스스로 통제하였다. 한편, 비행친구들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이 관계에 점차 거리를 두고 다른 좋은 친구들과 가까이 하였다. 이들은 대학을 가거나, 일을 하는 등 친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었다.

제가 나왔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바뀌어있더라고요. 애들이 좀 양아치스러운 그런 막 면이 바뀐 게 아니라 좀 스마트해진 거죠 똑똑해지는거죠 사고를 치면 내가 잡혀가는구나, 이런 걸 아니깐 그때는 어릴 때 모르니깐 그런 걸 알지만 봐주겠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죠. (참여자 3)

친구들이 마산친구들보다 울진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울진친구들이 그래도 학교 다니고, 취업준비하고 그러니깐(참여자 2)

13. 좋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함

이들은 처음 사회의 직장이라는 한 무리에 소속되었지만 이름뿐인 동료가 아닌 진정한 관계로 어울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하지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동료로 이해와 인정을 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사회에서 기존의 관계에서 더 넓어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성장의 자본을 더 쌓게 되었다.

a. 동료에게 자기개방으로 수용받음

이들은 동료들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신뢰감으로 소년원 출신이라는 치부를 스스로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잘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과, 자신을 이해해줄 것 같은 믿음이 공존하였다. 다행히 자신의 믿음대로 동료들은 자신을 부정

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의 실수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동료들에게 감사함과 모든 사람이 편견으로 보진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런데 그럴 거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같이 지내보고 그러다보니깐 그럴 거 같진 않았고 그냥 말하니깐 지금 잘하면 됐지 이렇게.. 지금은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어요. 근데 너 도대체 미용 어디서 배웠니? 소년원에서요. 소년원에 갔어? 이러면서 그냥 별 반응이 없었어요. ... 기분 좋았어요. 꼭 편견만 보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참여자 5)

처음에는 진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진짜 잘릴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니깐 정말 고마웠어요.(참여자 2)

b. 동료와 친밀한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

동료들은 자신들의 기술향상에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며, 공적인 관계 이상으로 발전되었다. 동료들이 자신에게 해주는 직장생활의 격려와 조언에 도움이 되고, 퇴근 후 동료들과 사적으로 술을 마시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점차 관계는 두터워지며 진정한 동료로 인정받게 되고 더 나아가 때로는 친구, 형, 아저씨로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동료들과 발전된 관계는 자신의 생활을 통제해주는 새로운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처음에는 저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막내야~ 막내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일하다보니깐 00야 00야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에 막내야, 막내야 했던 게 정말 막내예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있다보니깐 지내다보니깐 이름을 불러주니깐 기분도 좋았고 좀 나를 이제 직원으로 생각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되더라고요.(참여자 2)

버팀목 같은 거요. 제가 참고 오래 할 수 있었으니깐 만약에 짓궂게 욕하고 저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고 이랬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하고 나왔을거예요.(참여자 6)

일 끝나고 힘든 날마다 원장님하고 술 먹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각하거나 무단으로 나간적도 있거든요 이틀. 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서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많이 받고(참여자 5)

14.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애를 씬

직장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기 위해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도 중요했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기술이 능숙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애를 쓰며 노력하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인 눈치와 기술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나섬

이들은 직장 내에서 ‘든든한 내 편이 있다면’ 하고 친밀한 동료관계를 소망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동료와 친밀해지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발휘하거나, 성격과 달리 일부러 경계를 풀어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농담이나 사투리로 유머를 발휘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이들은 일적으로 동료가 일을 미루거나 실수하였을 때 직접 도와주고 실수를 모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괜히 할 거 없을 때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요? 이제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아 그래? 이러다 말 걸다 보면 저한테 질문을 유도하는거죠, 옛날부터 말은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유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를 나에게 묻게 만들고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그러다 친해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참여자 4)

또 어떻게 가서 말하라고 해요 제가 들고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부장님이나 실장님은 다 알아요 애가 실수한 게 아니라 재가 실수

했는데 애가 들고 왔구나,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버리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반죽치고 다시 발효하고 (참여자 6)

b. 동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

이들은 직장에서 최소한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동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누군가 시키는 일에 먼저 웃고, 친절하게 대하여 사회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갈등을 회피하거나 위치의 차이로 깍듯이 대하여 공적인 관계로 선을 그었다.

앞에서는 밝은 척, 웃어주는 게 그런거 뭐 시키면은 아 예, 이리기보다는 네! 제가 할게요 먼저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라도 한번 더해주는. 이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버리면 내가 여기 설 자리가 없는거지, 최소한 적은 안 되어야되거든, 내가 여기 공존하려면 (참여자 4)

딱히 디자이너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당시는 격차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되게 위대한 존재이고 덜 떨어진 존재라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참여자 1)

15.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함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자원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였다. 이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오로지 기술을 더욱 숙련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꽤 뚜렷하게 보였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자신감이 생겼다.

a.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짐

이들은 개별적으로 기술전문가, 디자이너, 창업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였다. 자신들의 목표가 명확할수록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실감나면서 더욱 자신감과 의욕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일의 힘들고 고되지만 밑바닥부터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단념하였다.

한 달에 120받고 야근하면서까지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만 하면 돈 진짜 열심히 모아서 가게 하나 차리면 거기서 조금 조금씩 발전하면 나중에 진짜 성공하겠구나 그걸 딱 느꼈어요. ...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의지가 있어도 안 되죠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대해서 의지가 생기는데 (참여자 2)

교육을 받고 순서대로 밟으면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미용도 그게 순서대로 올라가더라고요. ...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제 성향에는 맞는 거 같아요. 뭐가 보여야 좀 가는 게 있거든요. 8단계 있거든요. 총 2년인데 그때 저는 대학교 대신 이거 해서 2년 뒤에 직장을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학교다닌다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참여자 1)

b. 이 악물고 버텨

이들은 뚜렷한 목표가 보였으나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는 스스로를 다독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새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스스로 계속해서 떠올리며, 이들은 지켜보는 주변인들의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각오가 절실하였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버텨내야만 한다는 신념을 스스로 각인시켜 그냥 버티자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었다.

원장님처럼 나도 이렇게 손님 많이 받으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닦고 싶어했죠. 그래가지고 연습도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는 제가 더 절실했다고 말해야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참여자 5)

그 안에서 알게 된 선생님들은 나가서는 잘할 수 있을거다. 기대감이 좀 컸죠 안에서 제가 그렇게 생활을 못한 것도 아니고 생활을 잘했으니깐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갔다 나오니깐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제 나와서 뒤에서 봐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기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많죠.(참여자 6)

16. 성장의 욕심으로 나아감

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기술을 활용하는 직장에 취업하였지만 점차 전문적인 수준의 성장을 욕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제일 성실하게 일을 하며, 이들의 경쟁심이 발동되어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동료들의 어깨 너머로 기술을 눈치껏 익히는 등 열정적으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a. 개미처럼 열심히 일함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성실함과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히 하였다. 이들은 퇴근 후의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거나 주말에도 연습하며 스스로 훈련하였다. 또한 자신의 역할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혹여나 실수하게 되더라도 책임을 졌다.

일단 뭐든 열심히 하자 바닥도 누구보다 한 번 쓸 거, 두 번 더 쓸고 한 번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린, 해탈한 상태니깐 내가 한 가지 실수하면 인사를 두 번이나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울 때는 두 번 감사하고 출근도 항상 30분 먼저 해서 기다리고 퇴근도 10분 늦게 한 개라도 더 보고 무조건 열심히 었어요. 무조건, 그냥 할 줄 모르지만 신용을 쌓자 이 사람이 보기에요 요즘 애들같지 않네, 그런 애가 되고 싶었어요.(참여자 4)

제가 가게가 토요일까지 해요 일요일은 쉬는데 집이랑 가게랑 그렇게 멀지 않고 걸어서 가도 한 7분~8분이면 가요. 사장님 점장님 쉼 때 가게 문 열어달라, 저 혼자 연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도 인정을 해주더라구요. 애가 진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애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끼셨던 거 같아요.(참여자 2)

b. 동료들 통해 열정적으로 기술을 익힘

이들은 혼자서도 열심히 연습하며 훈련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자 상사나 동료들을 모델삼아 어깨너머로 관찰하고,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거나 모르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사에게 먼저 질문하여 기술을 섬세하게 지도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강한 경쟁심은 동료들 라이벌로 의식하여 가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저 혼자 독창적으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하나?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겠구나, 그런 거를 옆에서 봤어요. 지켜보니까 지켜보고 그거를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참여자 2)

오히려 선배라기보다는 그냥 좀 경쟁심으로 봤어요. ... 만약에 이게 분할을 할 때도 저 사람이 한 판 정도를 했으면 나는 반 바퀴는 채워야한다. 그리고 다음에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두 판을 채우면 나는 한판을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을 때 나도 저 절반까지는 해야겠다 계속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던 거 같아요. (나 혼자) 싸운거죠.(참여자 6)

17. 일의 성취와 재미로 ‘맛’ 을 느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재미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였다. 이들은 본래의 성향들이 직장에서는 강점으로 인정받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즐거움과 만족감은 일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a. 성격특성이 강점으로 드러남

이들의 짝짝함과 완벽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서비스업과 체계적인 기술훈련과정에서는 중요한 강점이 되었다. 그래서 고객응대에서 뛰어났고, 하나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

히는 등 직장에서 도움되는 자신의 성향이 만족스러웠다.

손님들한테도 되게 싹싹했어요. 원래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서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하면 손님이 놀래죠, 난 또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 이럴 정도로 아 저 직원인데요, 커피한잔 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저 직원 정말 싹싹하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라든지 다 좋아했죠(참여자 4)

준비성이나, 청소나 인사나 이 3가지가 자꾸 신경 써서 하다보니깐 주목받은 적이 꽤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주목받은 적이 있어서 신경써서 자꾸 하다보니깐 저만의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런 특성이 좀 많이 도움되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1)

b. 일의 즐거움이 몰입에 원동력이 됨

이들은 인내하는 것이 부족한 성향으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는 것이 더 재미 있었다. 또한 기초적인 기술이지만 스스로 해본다는 것에 의미를 가졌고 이에 만족스러웠다. 일 외에 부수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감사함을 보답받는 경험은 생소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연습할 때는)더 재밌어요. 제 시간이니깐 고객님의면 고객님의 빨리 헤드리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 가발이니깐 제가 잡아놓는대로 잡아놓을 수 있으니깐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재미는 더 재밌었어요. ... 내가 한다는 거, 내가 해본다는 경험이 적잖아요 뒤에 서있으면 스텝으로. 내가 나서서 내가 뭘 해준다(참여자 1)

야근 하면 새벽 1시까지 12시 새벽한시까지 하는데도 시간가는줄 모르고 했어요. ...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거니깐 힘든 건 없어요. (참여자 2)

일은 재밌었어요. 매일 새로운 걸 하니깐 저희 가게는 또 손님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이한 차들도 많이 오고 딱 이렇게 자동차 정비처럼 엔진오일이면 엔진오일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주다보니깐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여자 3)

18. 직업의 안정기에 진입함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직장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았고, 그 ‘맛’의 만족감은 값어치 없을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월급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배운 기술이 몸에 배어 오로지 자신의 것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자신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인정하며 직업의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a. 보상에 따른 자기만족감

이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첫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일한 수고의 대가를 느끼고 자신이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한 참여자는 중요한 사람에게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행복한 사치를 만끽하였다. 또한, 월급보다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도 보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들은 다양한 성취와 보상으로 직장생활에 만족을 경험하였다.

내 생애 첫 월급.. 아주 좋았지 옷도 한 벌 사고 엄마아빠 선물 하나씩 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선물하나 사고 친구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의미있는 돈이니깐 그리고 의미있는 사치였고(참여자 4)

(월급이) 되게 작았죠, 진짜 작았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최저임금보다 못 받았죠.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이거 기술직이니깐 기술배우면서 이걸 내가 할 줄 아는 게 느는거니깐 이런 거는 뭐(참여자 6)

b. 기술습득의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남

이들은 기술을 제대로 익혀나가면서 하는 업무가 다양해지고, 단기간에 직급이 오르거나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얻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지역구 내 디자이너 중에서 가장 어리면서 높은 매출로 평가받고 있었고 미리 예약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거기는 가마를 굽는 사람들이 5명이에요. 7개월 정도 해야지 맨 위에 가마 다 가르치고 가마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 빨리 해서 3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밑에 4명이 있었는데(참여자 6)

이 동구 안에서 매출 1000쪽는 디자이너 세 명 정도 있거든요. 그 세 명 중에 내가 탑에 올라갈거다 해서 저는 1300까지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참여자 4)

19. 삶의 주인의식을 갖게 됨

이들은 깊이 뿌리박힌 비행습관으로 발목 잡혔던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당장 눈 앞의 것, 자극적이고 달콤한 유혹을 쫓지 않고 눈을 들어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어리숙했던 생각과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 점차 성인과 주인으로서 자신을 위한 신중한 선택과 주도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a.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됨

자신의 철없던 행동과 충동적인 문제의 결과를 인식하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구분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게으른 생활습관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습관들이 이제는 늘어난 인내심으로 아침 일찍 기상하여 출근하고, 사회적인 눈치가 늘어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어.. 예전에는 그냥 제 기분내키는대로 행동했죠. 행동하고 하고싶은 대로 했고, 처음에는 그냥 철없고 생각없는 놈, 그래도 지금은 철든 건 아니지만 생각이 조금 생긴.. 생각을 할 줄 알게 되었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 이렇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사리분별 다 하고 그런 거(참여자 6)

아침만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만 일어나는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말고는 힘든 거 없어요. 알람끄고 다시 자요 반복하다가 마지막 알람 때 딱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씻고 바로 나가는거예요.(참여자 2)

\

b.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왔던 가치관은 변화하였다. 이들에게 돈과 친구와 재밌게 노는 것이 제일이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관이 생겼다. 가치관들은 서로 비교되면서 이전의 것보다 삶의 책임감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실행으로 이어졌다. 점차 이런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진짜 친구들과하고 놀잖아요. 놀고 싸돌아댕기고 그러는데 아 아닌거예요 이거는,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뭐하는거나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대요. 차라리 이 시간에 일하겠다, 그래서 일하러 다녔죠.(참여자 6)

여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그냥 한 군데에서 계속 있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굳이 다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안 친해져도 되고, 계속 신뢰도가 쌓이니깐 좋죠(참여자 5)

20.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발견함

이들은 자신에게서 새로운 ‘나’ 를 발견하면서 360도 달라진 모습에 대견하면서, 신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보답을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소년원생들에게 멘토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과거형의 소년범에서 현재형의 ‘멘토’ 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a. 예전과 다른 나를 발견함

하루에 한건씩 비행을 하던 자신이 360도 확 바뀌었다. 스스로 사고칠 것 같은 불안감조차 사라져 주변에서 잘하는 놈으로 인정받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고 느낀다. 자신뿐만 아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비행문제아에서 달라진 모습에 대견해한다.

어.. 확 바뀌었어요. 36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건씩 비행을 했어요. ... 지금은 그래도 다음날에는 이러 이런걸 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서 내가 생각을 비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일을 하다가 가게를 하다 차려야겠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거죠.(참여자 2)

잘했죠. 잘하는 놈, 잘 버텼다. 그러니깐 너가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냐, 잘했기 때문에 소년원이고 뭐든 간에 나에게서 걸림돌이 아니고 이제는 디딤돌이죠. 그거 때문에 잘 됐으니깐 여기까지 왔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잘될 수도 있네 이제는. 그때 그게 나에게 힘든 과거였는지언정 그걸 내 인생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기회를 만든다는 건 그때가 내 인생의 과도기였던 거 같아요, 터닝포인트(참여자 4)

형이 옆에서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리고 니가 지금 이 힘든 일도 버티면서 열심히 해주는 게 참 보기 좋다고. 저를 억지로 데리고 왔었잖아요. 너를 억지로 데려온 것도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티주니깐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참여자 6)

b. 멘토로 역할이 전환됨

이들은 소년원과 직장에서 도움받던 멘티에서 새롭게 소년원 후배들의 멘토로 변신하였다. 이들은 소년원 후배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동기와 자극제로서 생생한 조언을 해주고, 성공인사로서 강의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편, 동종업계의 후배들에게 자신이 연마한 기술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교육자의 역할로서 건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푸르미 서포터즈는 잘 하고 있어요. 소년원 생활을 어떻게 했고 군대에서 떨어졌는데 힘들었고 어떻게 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너희도 나를 보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는 이 자리에 섰던 유명하신 강사들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기도 더 잘 들어주고 박수 웬만해선 안 쳐주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 박수쳐주고(참여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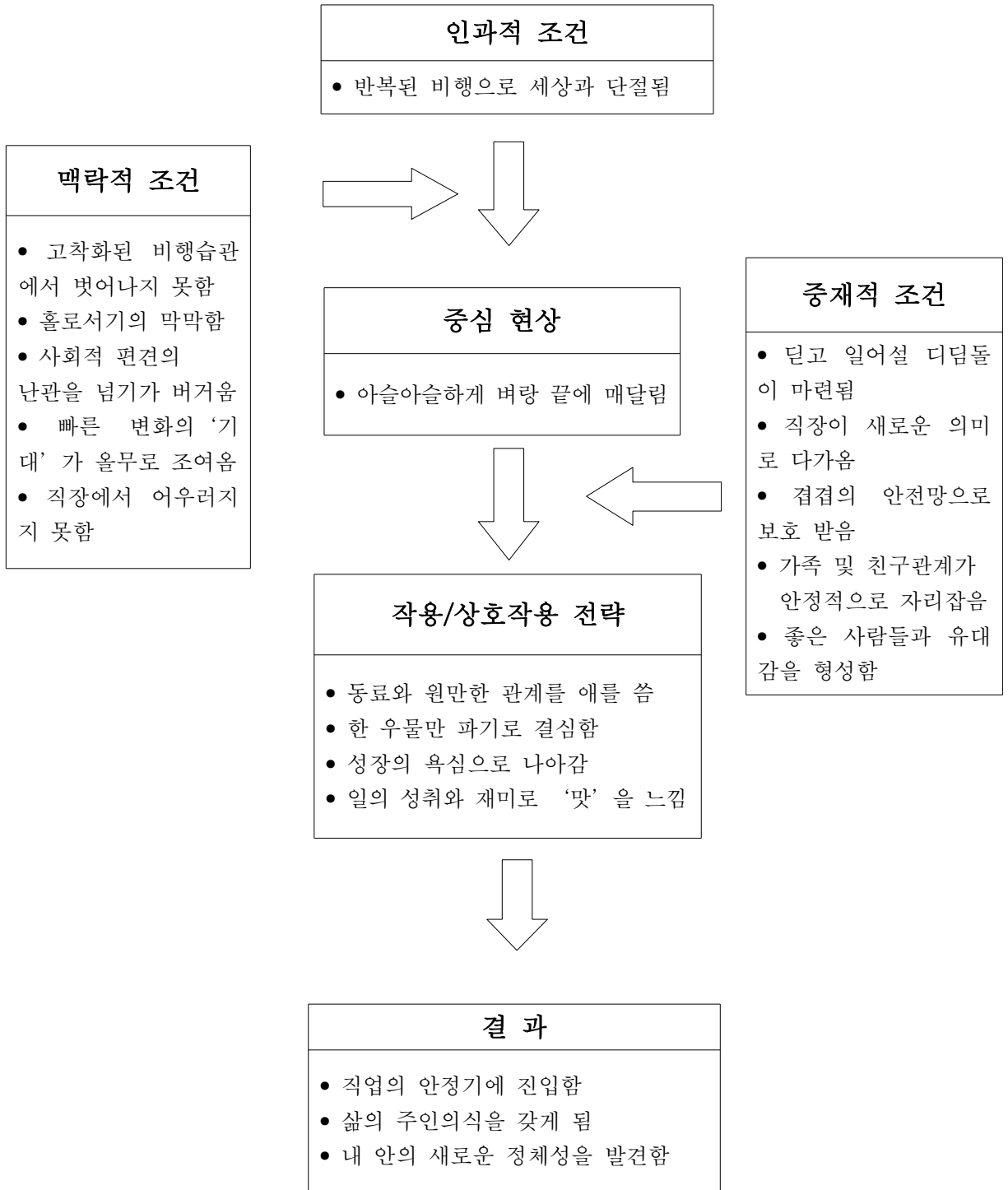
내가 그걸로 그 기술로 먹고 살고 있으니깐 ... 제가 그걸 배워서 그걸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거나 또 제자를 육성하거나 또 기술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라고 생각하죠. 아무래도(참여자 4)

생활관에서 저로 두 명이 더 취업을 했거든요. ... 아이들도 다른 미용실보다 더 적응을 빨리하고 배우는 과정도 내가 알려주고 더 빨라지니깐 서로 좋은거죠.(참여자 5)

B. 축코딩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의 구조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 안에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다음에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관련성을 제시 하였다.



<그림 1>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a.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반복된 비행으로 세상과 단절됨’ 이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적인 비행으로 소년원에서 장기간동안 사회와 단절되었으며, 소년원 생활로 대부분 경험하는 학교생활과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에 제약이 있어 사회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며, 미숙한 사회적인 기술로 인한 불안정함이 재비행의 여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과적 조건에 대한 속성과 차원은 표와 같다.

<표 5>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반복된 비행으로 세상과 단절됨	기간(입원 기간)	장기 - 단기
	정도	강함 - 약함

b.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주는 것이며,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 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장경험을 통해 탈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예전으로 되돌아 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마음을 느끼며, 직장에서도 포기한다면 재입원 또는 ‘빨간 줄’ 을 두려워한다. 직장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이곳을 떠난다면 다시 소년범, 성인 범죄자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자각하여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상황으로 느꼈다. 특히 소년원 남자 출원생은 비행의 상습화와 성인이 되는 시기에 인생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선택해야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버텨내야 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와 같다.

<표 6>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	정도	강함 - 약함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c.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작용/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하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착화된 비행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홀로서기의 막막함’, ‘사회적 편견의 난관을 넘기가 버거움’, 빠른 변화라는 ‘기대’가 올무로 조여움, ‘직장에서 어우러지지 못함’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칫하면 예전으로 되돌아갈 듯한 아슬아슬한 마음을 느끼며 또 다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생의 포기처럼 느꼈다. 이와 더불어 자신에게 불성실한 생활태도, 충동적인 특성이 남아있었고, 비행친구들과 가족, 동료로부터 도움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외롭고 더욱 막막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게 뒷 따라오는 소년원 출신의 꼬리표 때문에 직업선택의 한계와 자신을 향한 불신감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경험하였고, 주위에서 탈비행과 더 나아가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 빨리, 과도하게 기대함으로 부담감이 더해져만 갔다. 한편 직장에서 막내역할은 눈치 보이고 자존심상해 여전히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와 같다.

<표 7>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고착화된 비행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강도	강함 - 약함
홀로서기의 막막함	강도	강함 - 약함
사회적 편견의 난관을 넘기 버거움	태도	적극 - 소극
	강도	강함 - 약함
빠른 변화의 ‘기대’가 올무로 조여움	강도	강함 - 약함
직장에서 어우러지지 못함	강도	강함 - 약함

d.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현상에 미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마련됨’, ‘직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 ‘겹겹의 안전망으로 보호받음’, ‘가족 및 친구관계

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 ‘좋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함’ 이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 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성인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자립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소년원의 물적 및 인적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자신의 불안정하며 충동적인 특성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통해 만족을 느끼며 조절되었다. 또한 가족과 연계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선생님의 통제 및 격려 그리고 가족, 친구관계가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도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직장에서 새로운 관계와 유대감 형성은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되어 출원생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도움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와 같다.

<표 8>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닫고 일어설 디딤돌이 마련됨	정도	많음 - 적음
직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	강도	강함 - 약함
	태도	적극 - 소극
겹겹의 안전망으로 보호받음	지지도	강함 - 약함
	수준(통제)	높음 - 낮음
가족 및 친구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	수준(안정감)	높음 - 낮음
좋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함	친밀감	강함 - 약함

e.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쓰이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며, 중심현상을 다듬어 가는 방식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애를 씀’,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함’, ‘성장의 욕심으로 나아감’, ‘일의 성취와 재미로 ‘맛’ 을 느낌’ 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썼으며,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단념하고, 스스로 다짐을 상기시키며 강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욕심으로 남들보다 성실히 일하며,

열정적으로 기술훈련에 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사교성과 완벽성향이 강점으로 발휘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즐거움은 또 다른 일의 원동력이 되어 더욱 몰입하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와 같다.

<표 9>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애를 씀	태도	적극 - 소극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함	강도	강함 - 약함
성장의 욕심으로 나아감	태도	적극 - 소극
일의 성취와 재미로 ‘맛’ 을 느낌	강도	강함 - 약함

f.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안정기에 진입함’, ‘삶의 주인 의식을 갖게 됨’,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함’의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비행의 사고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수고하여 받은 월급과 자격증 등의 보상에 만족감을 느끼며 점차 기술이 향상되면서 직업의 안정기에 들어섰다. 한편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고려한 가치를 우선시하였다. 점차 비행의 욕구가 감소하고, 예전과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 기특해하고 주변에서도 이를 대견해하였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재발견하였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와 같다.

<표 10>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직업의 안정기에 진입함	수준	높음 - 낮음
삶의 주인 의식을 갖게 됨	강도	강함 - 약함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함	수준	높음 - 낮음
	강도	강함 - 약함

2.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정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분석한 결과 ‘혼미한 제자리 단계’, ‘위태위태한 바로서기 단계’, ‘버티면서 터 닦기 단계’, ‘탈비행자로서 정체성 형성’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은 <그림 2>과 같다.

(1) 혼미한 제자리 단계

소년원 출원생은 출원 직전 사회정착 준비 단계를 통해 출원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탈비행에 대한 다짐을 다진다. 그러나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비행이 습관으로 물들어져있어, 수고를 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거나 일자리를 가볍게 여기며,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 또한 비행친구들도 비행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함없이 유흥과 비행을 일삼는다. 한편, 가족들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지나치게 압박하기 때문에 가족의 울타리에 편히 있지 못한다. 이렇게 소년원 입원 전과 변함없는 생활환경과 관계들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원생은 과거의 타이틀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여 비행의 사이클의 주변을 맴돌며 제자리인 모습이 나타난다.

(2) 위태위태한 바로서기 단계

출원생은 소년원의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다니게 된다. 어린 나이, 낮은 학력, 소년원 출신 등 사회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이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선택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직장의 낮은 환경과 더불어 주변의 과도한 기대로 홀로 자립하는 것에 부담만 더해져 막막해진다. 이 때, 이들의 의지를 뒷받침해주며 안전감을 주기위해 소년원과 주변의 물질적 및 복지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받는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발을 내 디디려는 의욕이 생긴다. 하지만 직장에서 과거의 잘 나갔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게 된다. 스스로 이러한 마음이 조절되지 않는 불안감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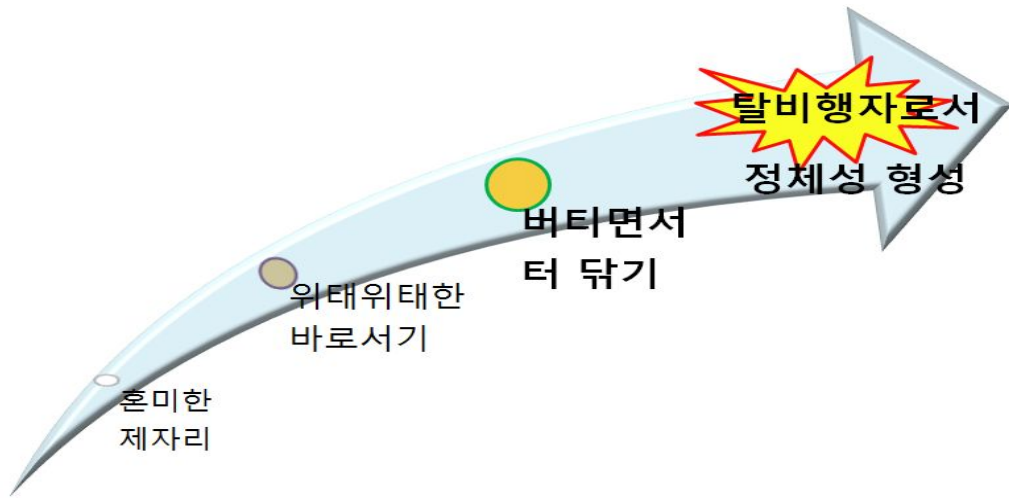
해져만 간다. 그럼에도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재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의지와 과거의 내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으며 위태위태한 기로에 서있게 된다.

(3) 버티면서 터 닦기 단계

이제는 직장을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최후의 보루로 여기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야할 길이 분명해진다. 새로운 목표설정과 실현을 위해 스스로 다짐을 상기시키며, 이를 악물고 무조건 버티기에 돌입한다. 이에 소년원 선생님의 지속적인 격려가 바탕이 되고 더하여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두터워진 유대감은 새로운 버팀목으로서 삶의 원동력이 된다. 직장에서 힘들고 고됨도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단념하며 기술훈련을 열정적으로 익힌다. 점차 자신이 무언가를 한다는 성취감과 즐거움으로 일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직장생활에 몰입하게 된다.

(4) 탈비행자로서 정체성 형성 단계

이들은 새로운 직장환경의 적응과 동료관계의 유대감, 자신의 기술향상으로 인한 일의 안정감은 생활의 안정감으로 이어져 규칙적인, 안정된 생활이 익숙해진다.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의 매길 수 없는 값짐을 알게 되고, 월급보다 기술의 향상이 더 큰 보상이 된다. 이제는 눈 앞에 보이는 돈과 자극적인 유혹보다 장기적인 가치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분별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 위해 하기싫은 일과 해야하는 일을 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비행에 대한 생각에서 멀어져간다. 이제는 주위사람과 스스로가 인정하는 탈비행의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기만 했던 자신이 반대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도움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림 2>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

C.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1. 핵심범주 :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서로 다른 범주들을 모아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힘을 가져야 하며,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은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하기’로 이루어진다.

소년원 남자 출원생은 깊이 뿌리박힌 비행습관과 더불어 소년원의 단절된 생활경험에서 가족과 비행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 소년원의 모범적인 생활로 주변에서 과도한 기대는 부담스럽고 성인으로서 자립의 압박을 받지만 동시에 소년원 출신의 꼬리표와 새로운 직장환경과 구도에서 적응하지 못해, 홀로서기는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칫 예전으로 되돌아갈 듯한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의지

는 불안해져가고, 성인으로서 막다른 기로에 서있게 된다. 이 때, 소년원과 선생님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 끊임없는 격려로 지지해주며 동료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동료라는 유대감은 한 줄기의 희망으로 다가와 점차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직장에서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다짐을 상기시키며 열정적인 한 우물을 파기로 자신의 터를 닦게 된다. 결국, 탈비행자로서의 인식과 삶의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갖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된다.

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관련성을 확인하고 다듬으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기술하는 과정으로 서술적 문장에서 개념화로 가는 과정을 적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핵심범주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해석적으로 이해하여, 그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하는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비행으로 소년원에서 오랜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또래들과 공유할 학창시절이 없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관계형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장기적인 소년원 생활경험을 통해 습득하였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발달시기에 남다른 경험으로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출원 후에도 어린 나이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은 채, 비행친구들과 자신의 비행습관과 문제적인 생활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행친구들 무리 속에서 다른 인식을 하지만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도 친구들과 노는 것을 그리워했다. 또한 일자리는 돈을 쉽게 버는 수단으로만 여겨 직업과 직장의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이러한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출원 전부터 의지를 다지고 출원하지만 비행습관은 강력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회귀하게 한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생활환경과 관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인 편견과 주변의 탈비행과 모범적인 생활을 향한 과도한 기대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족들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자립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타지생활을 선택하였지만 짐작처럼 무거운 부담감을 어깨에 얹은 채 자

립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타지의 외로운 생활과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졌다. 더불어 주위에서는 소년원의 모범적인 생활과 출원으로 과도하게 기대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처음에는 좋았던 ‘기대와 관심’이 어느새 울무로 변해 자신을 더욱 조여왔다. 또한 직장이라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구도, 관계에서 과거의 화려했던 타이틀을 놓지 못하여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참여자들의 의지를 좌절시키며 회귀본능을 불러일으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현재의 의지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게 된다. 이에 더하여 직장이 아니면 재입원, 성인으로 처벌의 강도가 높은 교도소, 빨간 줄의 두려움을 자각하며 이 일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막다른 기로에 서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년원과 선생님들이 안전한 자립환경의 기반을 조성해주며 정서적인 지지로 마음을 다잡게 하였다. 그리고 직장생활은 성인으로 경제적인 활동과 자립의 압박을 해소해주며 자신이 살 길이라고 여기게 된다. 직장의 정기적인 진급시스템과 월급의 보상구조는 자신에게 부족한 인내력과 충동성을 지연하도록 해주며 만족감을 느껴 점차 직장을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게 된다. 직장생활과 동시에 공식적·비공식적인 지도관리와 가족, 친구관계가 안정적으로 변화한다. 더불어, 직장 동료들에게 사회적 편견이 아닌 현재의 자신으로 수용 받으며 진정한 동료가 되었고 두텁게 형성된 유대감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버팀목이 되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었다. 복합적인 요인에 자극을 받아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동료들과 관계형성과 관계의 원만함을 위해 먼저 다가가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한 우물 파기를 결심하여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일의 힘들음 과정을 단념하였고, 새로운 인생의 다짐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이를 악물고 무조건 버텨내려고 하였다. 이에 더불어 자신의 성장에 욕심내기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근무 외 시간에도 연습에 매진하며, 동료와 라이벌 의식으로 가상의 경쟁과 어깨너머로 관찰하였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사교성과 완벽한 성향이 직장에서 강점으로 발휘되고 생생한 현장에서 자신이 뭔가를 한다는 생산적인 경험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만족감은 일의 성취와 재미를 불러일으켜 일하는 것에 원동력이 되어 몰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에 따른 보상과 기술습득 및 향상에 만족감을 경험하며 불안정했던 삶의 기로에서 벗어나 직업의 안정기에 진입하였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분별하며 충동성을 조절하여 인내할 수 있었다. 가치

관에 관한 관점이 변화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며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로써 비행습관이 아닌 진정한 삶의 주인의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비행사고의 감소, 주변과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며 대견함을 느끼고, 소년원 후배들의 멘토로서, 동종업계 후배들의 교육자로서 역할이 전환되어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거듭나게 된다. 이렇듯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은 각자의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수준과 상황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탈비행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지지체계의 형성이 중요하며 탈비행은 직장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의 유형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a. 가설적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란 관계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 과정의 첫 단계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 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조건과 중재조건을 형성하는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른 참여자들 간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을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으며, 공통적인 범주들은 탈비행을 촉진시키거나 보호하는 중요요인으로 파악된다. 정리된 범주들을 통하여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의 가설적 정형화는 <표 11>과 같다.

<표 11>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 유형

조건	조건형성 범주	속성	갈등공존형	진취형	역전승리형
인과	소년원 생활	기간	장기	장기	장기
중심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	정도	강함	강함	강함
		연속성	지속적	일시적	지속적
백락	고착화된 비행습관	강도	강함	중간	강함
	사회적 편견의 난관	강도	강함	약함	중간
	기대와 홀로서기의 막막함	강도	강함	약함	강함
중재	안정된 환경과 관계	정도	많음	중간	많음
		지지도	적음	많음	많음
	직장의 새로운 의미	강도	강함	강함	강함
		태도	중간	적극	적극
새로운 관계와 유대감	친밀감	약함	강함	강함	
상호 작용	동료관계와 기술을 위해 애를 씀	태도	소극	적극	적극
	한 우물만을 몰입하여 팜	강도	약함	강함	강함
결과	직업의 안정기	수준	낮음	높음	높음
	삶의 주인의식을 갖게 됨	강도	약함	강함	강함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 재발견함	강도	약함	중간	강함

b. 가설적 관계 진술

가설적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정형화를 통해 도출된 ‘갈등공존형’, ‘진취형’, ‘역전승리형’의 3가지 유형에서 나타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등공존형

이 유형의 특징은 출원 후에도 자기조절의 확신부족과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아슬아슬한 마음’이 강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직장을 가볍게 여기고 충동적인 생각, 행동과 같은 ‘예전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소년원 출신으로 직업적 한계를 경험하며 ‘사회적 난관’을 넘는 버거움이 강하며, 가족과 소년원 선생님의 과도한 기대와 홀로 자립해야 한다는 ‘막막함’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술만이 살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직장의 새로운 의미’를 강하게 자각하지만, 이를 자신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 또한 주변의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가족, 직장동료와 관계의 거리감으로 지지를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도 동료관계와 기술습득에 애쓰지 않고 ‘소극적’이며 기술훈련에 몰입의 정도가 약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습득의 수준이 낮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약하게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나로의 변화도 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2) 진취형

이 유형의 특징은 출원 후에도 자기조절의 확신부족과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아슬아슬한 마음’이 강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과 충동적인 모습이 강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동료들에게 소년원 출신의 편견이 아닌 수용받음으로 사회적 난관을 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의 격려를 통해 홀로서는 것을 감당하였고 직장의 새로운 의미에 따른 의지가 강하며 적극적이었다. 주변의 지원을 통해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가족과 소년원 선생님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친밀하고 강한 유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자신도 동료관계와 기술습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와 기술훈련에 몰

입의 정도가 강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습득의 수준이 높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고 새로운 나로 변화하였지만 적극적인 도움주는 사람으로서 역할까지는 미치지 못해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3) 역전승리형

이 유형의 특징은 출원 후에도 자기조절의 확신부족과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아슬아슬한 마음’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잠시 동안 친구들과 방황하며, 직장에서도 충동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전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에서 소년원 출신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에 적절하게 대처하였거나, 동료들이 소년원 출신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으로 버거움을 견뎠다. 또한 부모님의 부재와 방임으로 자립의 압박감을 강하게 느껴 소년원에서 훈련 받은 기술의 활용의지가 강하며, 직장의 의미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적극적 태도가 나타났다. 소년원과 생활관에서 ‘안정된 환경’과 물질적인 지원 등을 제공받으며, 소년원 선생님과 멘토, 생활관 선생님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다. 또한 동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자신도 동료관계와 기술습득을 위해 경쟁심을 발휘하여 연습에 매진하며 기술에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다짐을 상기하며 직장생활에 강하게 몰입하였다. 그 결과로 안정된 기술숙련과 장기적인 가치의 전환으로 삶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에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인정하며, 소년원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b.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유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면서 근거자료를 통해 도출된 범주와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의 사실적 관계에 근거하여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탈비행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크게 ‘갈등공존형’, ‘진취형’, ‘역전승리형’으로 정리하였다. 정형화된 각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등공존형

이 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참여자 1, 3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은 출원 전, 부사관이라는 목표가 소년원 출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며 출원하였다. 자기조절의 불안함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지만 가장역할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는 것을 자각하여, 직장을 구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또한, 소년원의 단절된 생활로 대인관계를 책을 통한 정보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부족으로 실제 동료관계에서 당황함을 경험하였다. 소년원 선생님을 통해 장학금과 복지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의 부담감은 덜었지만, 꾸준한 연락과 응원은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감에 더해져 부담과 압박이 되었다. 동료관계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월급, 기술에 보상감을 느끼지 못해 점차 목표에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직장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더 이상 비행사고는 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기술습득의 힘겨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다른 참여자 3도 부사관의 목표에서 좌절 경험을 하고, 출원 후 자신을 향한 지나친 기대에 떠밀려 직장을 구하였지만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또한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힘들었지만 직장이 아니면 다른 할 것이 없는 상황을 인식함으로 버틸 수 밖에 없었다. 사장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함으로 점차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스스로 직장생활의 기한을 두어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재입원의 두려움으로 비행사고는 하지 않으며 선생님들의 응원에 소년원 푸르미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스스로 비행을 하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2) 진취형

이 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참여자 2, 6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는 출원 후 자신의 불안함을 통제하기 위해 기관으로 연계되었고, 비행친구와 관계를 단절하며 스스로 충동과 환경을 조절하였다. 직장에서 용기내어 소년원 출신을 개방할 때, 사장님의 수용적인 반응에 감사하였으며, 주변의 과도한 기대로 부담이 되었지만 소년원 및 기관의 지원, 지지로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감당해냈다. 또한 직장을 통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함으로 주말에도 혼자 연습하며 기술습득에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또한 사장을 아저씨로 부르는 편안한 관계에서 늘 관찰하는 모델링 훈련으로 점차 수준이 향상되고 일의 영역이 늘어남에 스스로 만족하였다. 그럼으로써 기술이 몸에 배는 것을 실감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저축을 하는 등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며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 다른 참여자 6은 출원 후, 곤장 형의 통제로 취업을 하게 되어 친구들과 놀고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타지생활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어 욕구가 조절되었다. 동료들이 현재의 성실한 모습을 수용해주며, 소년원 선생님을 통해 장학금과 응원과 축하선물 등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태도로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기술을 잘 배우고 싶은 욕심과 즐거움으로 더욱 직장생활에 몰입하였다. 그럼으로 단기간에 직급이 오르며,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일이 중요함을 깨닫고 형이 예전과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줌으로써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였다.

3) 역전승리형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참여자 4, 5로 나타났다. 참여자 4는 출원 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출원하였지만 소년원의 배려로 기관연계와 자격증 취득에 도움받았다. 타지에서 취업하였지만 과거의 영웅심리와 타이틀을 놓지 못해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이 계속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을 보며 놀고싶고,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소년원 선생님과 목사님은 또 다른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충동적인 비행욕구와 직장생활을 버텼다. 한편, 직장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원장님들과 성장을 향한 욕심으로 동료들과 경쟁하며 동료들보다 월등한 디자이너를 목표로 세워 스스로를 학생으로, 버티지 못하면 실패자임을 다짐하며 몰입하였다. 그렇게 지역 내에서 어린 나이지만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였고, 소년원과 법무부에서도 인정받는 성공케이스이자 푸르미 서포터즈로서 소년원 후배들에게 조언과 강의를 하며, 한편 기술훈련을 시키는 교육자로 변화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 5는 전국에서 유명한 비행아로서 재비행과 입원이 패턴화되었고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도 잠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 일도 그만두고 방황한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부재로 자립이 당위적인 상황에서 생활관 관장님의 도움과 지도로 규칙적인 생활과 취업기회를 얻고, 직장에서 소년원 출신의 꼬리표를 수용받았다. 충동적인 무단결석에도 원장님의 이해와 동료들과 여행하며 형성된 강한 유대감은 새로운 버팀목이 되었고, 점차 관계와 기술훈련에 경쟁심으로 연습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뿌듯하며 놀라워하였다. 그럼으로 빠른 기술향상으로 직급이 오르고, 직장에서 얻은 신뢰감으로 생활관의 후배들을 직장에 취업시키고 직접 교육하며 멘토로서 조언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A. 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들이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년원에서 출원하여 직장경험을 하고 있으며 탈비행한 남자 출원생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자 출원생들을 대상으로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에 관한 심층면담과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에 의거하여 개방적 질문으로 일 대일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차에서 최대 3차에 걸친 면담에 참여한 직장경험을 통한 탈 비행을 한 남자 출원생 6명을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95개의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이 개념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41개의 하위범주와 19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였다.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의 중심현상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으로 나타났고, 인과적 조건에서는 ‘반복된 비행으로 세상과 단절됨’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고착화된 비행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홀로서기의 막막함’, ‘사회적 편견의 난관을 넘기 버거움’, ‘빠른 변화의 기대가 오히려 조여움’, ‘직장에서 어우러지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마련됨’, ‘직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 ‘겹겹의 안전망으로 보호받음’, ‘가족 및 친구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 ‘좋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함’이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애를 씀’,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함’, ‘성장의 욕심으로 나아감’, ‘일의 성취와 재미로 맛을 느낌’이 나타났고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직업의 안정기에 진입함’, ‘삶의 주인의식을 갖게 됨’, ‘내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함’의 범주로 나타났다.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은 ‘고착화된 비행습관으로 약한 의지가 혼미한 제자리 단계’, ‘과거의 나와 새로운 의지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위태위태한 바로서기 단계’, ‘최후의 보루인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기술습득에 매진하

는 버티면서 터 닦기 단계’, ‘직장에서 안정감을 찾고 고착화된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탈비행자로서 정체성 형성 단계’로 나타났다. 소년원 남자 출원생이 직장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탈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범주는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이었다.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유형은 크게 ‘갈등공존형’, ‘진취형’, ‘역전승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갈등공존형’은 자기조절이 부족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강한 마음과 주변의 약한 지지체계로 인해 직장경험을 통해 홀로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하며 공존하는 유형이다. ‘진취형’은 출원 후 강한 의지와 목표의식으로 주변의 지지를 받고 탄력적으로 나아가 직장과 생활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역전승리형’은 반복되는 비행과 소년원 입원 경험이 많은 위험군이었지만 외부의 지원 및 지지와 탈비행의 절실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주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에 대한 논의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B. 논의

1.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들이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은 어떤 유형들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년원 남자 출원생들이 경험하는 핵심범주는 ‘막다른 기로에서 희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로 나타났고, 중심현상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림’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의 중심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의 중요한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출원생들은 주변인들로부터의 지나친 기대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변의 과도한 기대가 출원생에게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모범적인 생활로 빠른 변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탈비행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할수록 출원생들은 출원 이후 탈비행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다. 하지만 모범적인 소년원생이었다 하더라도 출원 이후 성실한 생활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습관화된 비행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남자 출원생들의 사후지도에서 가족, 소년원 선생님, 주변인들의 기대 수준과 개입 정도가 중요하며, 출원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적절한 수준일 때 출원생의 직장경험과 탈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기대와 지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탈비행에 성공한 남자 출원생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았으며, 취업을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항목으로 인식하였다. 성인으로서 갖는 자립 의지와 압박이 탈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탈비행에 성공한 남자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기보다는 직접 벌어야 한다는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립에 대한 압박감과 생계비 마련에 대한 절실함이 탈비행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남자 출원생들의 경우 경제적 독립 및 생계비 마련에 대한 절실함이 탈비행의 성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직장에 입문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을 출원하기 전에 출원생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절실함과 구직 의사를 확인하며 이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의 충동성을 통제해주는 상황과 조건으로 재입원의 두려움, 공식적·비공식적인 통제, 정서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수고의 보상, 기술의 습득 및 향상, 승진 체계 등 직장의 정기적인 보상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자 소년원 출원생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원생의 사후지도에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종을 마련해주며, 직업훈련과 취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장동료들과의 유대감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직장동료들과의 새로운 유대관계는 출원생의 비행충동성을 조절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이는 이발희, 고윤순(2012) 연구의 오로지 ‘가족’ 만이 의지할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밝혔던 결과보다 다양한 지지체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Sampson과 Laub(1993)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유대 및 애착이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재비행하게 될 경우 발

생하는 손실이 두려워 재비행을 억제하게 된다는 주장과 같았다. 따라서 이들이 출원 후 직장생활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으로 대인관계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 비행 유형에 대한 논의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 비행 유형은 ‘갈등공존형’, ‘진취형’, ‘역전승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갈등공존형’은 자기조절이 부족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강한 마음과 주변의 약한 지지체계로 인해 직장경험을 통해 홀로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하며 공존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들은 직장에서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하여 동료관계에서 조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직장생활의 즐거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출원생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주어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체험이 중요하다. 소년원 선생님이 채용 시 담당하던 출원생을 출원 후 6개월에서 1년간 사후지도 하는 희망도 우미 제도와 이외에도 자원봉사자와 1:1 멘토링 결연을 맺어 지지체계의 기반을 다져 주고 소년원 선생님, 멘토와 역할연습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출원 전, 직장의 낯선 구도와 새로운 관계를 각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에 따라 산업체 현상 실습이나 통근 취업을 통해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출원 후 직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진취형’은 출원 후 강한 의지로 주변의 지지를 받고 탄력적으로 나아가 직장과 생활에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들은 비행친구들로 인해 잠시 예전과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직장과 일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기술습득 및 향상과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열정적으로 기술훈련에 몰입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인식변화의 모습들을 보였다. 하지만 ‘역전승리형’에 비해 개인적인 변화에 머무르며 타인에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출원 후 초기의 강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소년원 선생님 또는 가족이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과 능동적인 구직활동 방법을 코칭하며, 이와 더불어 동행면

접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후 3개월 이전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직장생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수고스러움을 이해하고, 직장생활에서의 작은 변화와 근속 등을 인정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전승리형’은 가장 비행과 입원경험이 많은 재비행의 위험군으로 볼 수 있었지만 외부의 지원 및 지지와 탈비행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몰입하여 개인적인 인식과 생활변화를 넘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들은 출원 후에도 몇 번의 재비행의 위험과 방황을 하며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주변에서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과 애정과 지지를 받으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직장에서도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출원 후 초기의 불안정감을 위해 안정된 생활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 청소년자립생활관 또는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로 연계하여 규칙적인 생활지도를 받고 동시에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계기관의 경우 22세 또는 24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안내하며 이 나이까지는 자립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립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행의 위험군이었던만큼 출원 후 소년원 선생님이나 가족들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 직장생활을 통한 변화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유형마다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출원 후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년원 선생님과 멘토링을 통한 지지체계의 마련과 초반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행이 중요하다. 또한 연계기관을 통한 생활지도와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의 현장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낮은 직장구도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며 분명한 목표설정으로 몰입하여 개인의 인식과 생활변화, 더 나아가 정체성의 변화로 즉 탈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C.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소년원 남자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을 근거 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지만 현실적인 접근의 어려웠으며 특히 ‘직장경험을 하고 있으며 탈비행한 소년원 남자 출원생’ 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어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했던 한계에 실제적인 예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소년원 출원생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재비행의 위험률이 높은 남자출원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자 출원생들이 느끼는 자립의 압박과 취업의 필요성의 강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남자 출원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출원 후 사후지도 및 상담적 접근이 달리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탐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참여자들이 출원 후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을 질적 연구방법의 근거이론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체이론을 생성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구조적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출원 이후부터 직장생활의 주요 경험과 과정을 통한 탈비행을 이해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과정을 밝히며 유형을 분류하여 다방면으로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탈비행을 살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소년원 남자 출원생들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앞으로 남자 출원생의 취업준비와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여 궁극적인 탈비행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직장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통해 탈비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한된 내용을 제시한 인생의 전환점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 본 연구는 참여자의 표집과정에서 근거이론에 합당하려면 더 많은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여야 했지만 연락과 만남이 가능한 6명만이 연구에 참여하여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며 소수의 인원과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결과의 내용이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연구가 되어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김귀분, 신경림, 김소선, 유은광, 김남초, 박은숙, 서연옥 (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김은숙. (200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2004).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해수, 이연상 (2013). 탈비행에 성공한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 실태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1(3), 125-136.
- 네이버뉴스 (2007). ‘신입사원 업무적응기간’ <이코노미 21>
-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보고서. 서울: 대검찰청.
- 법무부 (2013).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손순용, 양철호 (2009).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연구, 17, 61-82.
- 신경림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이발희, 고윤순 (2012).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24, 1-38
- 이희연 (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 청소년 연구, 16(1), 383-420.
- 조경미 (2010). 소년원 퇴원생의 재사회화 과정 : 소년원 퇴원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운오, 이유진 (2011).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12.
- 최옥채, 이정미. (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33), 143-167.
- 한영선. (2011).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16(2), 159-192.
- Altschuler, D. M., & Brash, R. (2004). Adolescent and teenage offenders confront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reent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72-87.
- A. Strauss & Juliet Corbin,(신경림역, 2001).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
- Andrews, D., & Bonta, J. (1994).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 Bushway, S. D., Piquero, A. R., Broidy, L. M., Cauffman, E., & Mazerolle, P. (2001). An empirical framework for studying desistance as a process. *Criminology*, 39(2), 491–516.
- Elder, G.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 1–12.
- Glase,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Laub, J., & Sampson, R. (2001). Understanding desistance from crime. In M. Tony (Ed.), *Crime and justice* (Vol. 28, pp.1–6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ub, J., & Sampson, R. (2003).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Delinquent boys to age 7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offenders reform and reclaim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oks.
- Mears, D. P., & Travis, J. (2004). Youth development and reent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3–20.
- Sampson, R. J. & Laub, J. H(1993). *Crime in the Making : Pathway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L., Conger, J. C., & Elder, G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 on the 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 217–243.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Springer, New York.

Strauss, A. Al.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eces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부 록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소년원 남자 출원생의 직장경험을 통한 탈비행 과정

연구자 : 이 수 빈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 남자 출원생이 어떤 직장경험을 통해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지 과정에 대해 이해하여 남자 출원생의 안정적인 직장경험을 바탕으로 탈비행 개입방안을 마련하여 사후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소년원 생활부터 직장경험과 탈비행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면담은 1회 이상의 면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예정입니다.

면접내용은 녹음할 것이며 녹음된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추후 익명으로 인용될 것입니다.

본인 _____ 는 면담에 동의하며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은 연구자를 통하여 면담내용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받았으며, 면담도중 질문에 대한 거부와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어 이해합니다.

2016.

참여자 :

연구자 : 이 수 빈

<자료분석 과정_1. 각 참여자의 축어록: 개방코딩>

- 참7: 출원을 하고 딱 밖에 있었던 게 집에 있었던 게 일주일 있다가 바로 예스센터로 왔어요. (취업을 위한 결정/출원 직후 사회정착기관으로 입소함) 예스센터로 와서 계속 예스센터에 있다가 9월에 취업을 나가게 됐어요. (출원 후 9개월간 기관에서 생활함) 9월초에 취업을 나가서 5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1월 말에 군대도 가야되고 엄마랑도 있을 시간이 없었고 그때까지(퇴사의 이유: 군대/군입대와 가족으로 인해 직장을 사직(퇴사)함). 해서 군대가기 전까지라도 엄마랑 같이 있고 (군입대 전. 모와의 시간을 원함)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군전역 후. 일과 저축의 계획이 있음) 그렇게 하기로 엄마도 그렇게 하는걸 원하고 (모와 상의하여 사직을 결정함) 저도 군대가기전까지라도 조금이나마 조금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용인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군입대 전 심을 위해 사직함)
- 연8: 군대가기 전까지 쉬고 가족과 시간도 더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스센터에 있다가 일을 구하게 된 상황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 참8: 제가 원래는 여기서 배우는 것도 타이어쪽으로 많이 배웠어요. (기관에서 기술을 훈련(익힘)받음) 타이어 쪽으로 많이 배우고 취직을 할려고 해도 타이어쪽으로 정비랑 타이어쪽으로 취직을 할려고 했으나(기술을 고려한 취직준비/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취업을 계획함) 제가 알아본 곳은 울진이고 거리도 좀 멀고 센터랑 거리가 멀어서 (거주지(기관)와 먼거리의 직장에 대한 고민. 주저함) 이제 만약에 일을 하다가 적응을 못하게 될 경우에 다시 센터에 들어와도 된다(부담감이 줄어드는/안심이 되는 조언/선생님의 불안한 직장 생활의 조언에 대한 안도감) 그렇게 할려면은 센터랑 가까운 곳에서 일을 구해서 일을 하는게 어떨겠냐 (선생님께서 기관과 근접성이 높은 직장을 권유함)

<자료분석 과정_2. 각 참여자 의미단위 분류: 개방코딩>

참여자 1			
	A	B	C
1	번호	의미단위 요약	원자료
2	01-02-01	소년원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염려함	: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깐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소년원에서 왔다 그래서 머리가 짧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구요. 그냥 구인광고 보고 바로 제가 자격증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나만 더 궁금한 거 더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웃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크게 많이 얘기 안했어.
3	01-02-03	소년원출신을 밝히기 꺼려하는 것을 합리화함	크게는 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말로 하면 자꾸 더 꼬집어내면서 물어볼까봐 그거 써갔어요 자기소개서. 그거 밝혀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 만약에 어차피 과거인데 이 사람이 과거가 그렇게 크게 별로 안 궁금할텐데 그래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못 느껴가지고 이야기를 안했었어요. 말해야 될 걸 숨긴 건 아니니깐 안 말해도 될 거였으니깐 말을 안 했어요.
4	01-02-05	동료들의 무시를 미리 경계함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으니깐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깽뚫이 대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회 첫 생활이니깐 좀 함부로 나한테 뭘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말을 쉽게 하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해줄 것도 쉬운 사람한테는 대강으로 던져놓고 하면서 바라 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 가르쳐줄 때 제대로 못 배울 그런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5	01-02-07	적극적인 가르침을 요구하기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해주니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 아는 만큼 더 해달라니깐
	01-02-10	동료관계의 실망스러움	학교에 있는 느낌을 좀 갖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도 가르쳐주는 거는 진짜 작고 / 다 스스로 해야되는 거라서 좀 어렵다해야되나.. (자율적인 부분의 어려움) 좀 내가 이렇게하면 뭐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박혀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거 같아요. 뭐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 그게 아니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참여자 !			
	번호	의미단위 요약	원자료
	04-02-01	월급의 값진 의미	내 생애 첫 월급.. 아주 좋았지 웃도 한 벌 사고 엄마아빠 선물 하나씩 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선물하나 사고 친구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의미있는 돈이니깐 그리고 의미있는 사치였고
	04-02-05	타지생활로 친구관계를 단절함	친구를 포기했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때문에 내가 또 부산에 있었으니깐 모든 친구가 울산에 있었는데 내가 나왔다는걸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친구를 거의 안 만났어요 그렇죠 거의 끊었죠.
	04-02-06	유혹의 미연방지위해 친구단절을 결심함	난 내가 나를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 할거라는 걸 내가 내 약점을 아니깐 그걸 뒤흔어놓은 거죠.
	04-02-07a	우정보다 나의 (탈비행)절실함이 더 중요	내가 언제 돌아가도 그 자리에 있을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을 거다 내가 성공해서 가면은 도망갔던 아이들도 나한테 올거고 그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랬었거든요 역시 내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환영해주는 친구들이었고 딱 그거를 믿었던거죠. 아는 친구들이니깐 충분히 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버릴수도 있는 만큼 가치가 있으니깐 우리가 나가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찾아보는게 친구거든요 내 나왔다는 걸 굳이 왜 알려야되지?
	04-02-07b	스스로 소년원 출신을부끄러워함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말로 하면 자꾸 더 꼬집어내면서 물어볼까봐 그거 써갔어요 자기소개서. 그거 밝혀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 만약에 어차피 과거인데 이 사람이 과거가 그렇게 크게 별로 안 궁금할텐데 그래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못 느껴가지고 이야기를 안했었어요. 말해야 될 걸 숨긴 건 아니니깐 안 말해도 될 거였으니깐 말을 안 했어요.

<자료분석 과정_3. 일관적인 의미단위 발견: 개방코딩>

취업							
취업준비에 대한 정보부족/직장선택시 중요사항	1. 취업준비(직장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족 2. 직장선택에 대한 고려사항의 단순함	·목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취업결정함	·직장선택에 단순한 조건/직장선택의 고려사항이 적음 ·취업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음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구함 ·직장선택에 대한 고민	X		·월급이 많다고 생각함 ·직장관련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순진무구함	·취업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음
*정반대	본인의 욕구를 중요시하여 직장선택함.		·돈보다 명예를 원함=어린나이에 명예/직급/명함을 얻게 됨	·직장선택의 고려사항이 있음=월급/기숙사	·기술숙련의 욕심으로 직장선택을 신중히 함		
동료와 사적인 만남/진솔한 대화 직장 외 사적인 시간공유/진솔한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류	X	·퇴근 후 사장님과 시간을 갖음	·직장동료들과 직장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눔/직장동료들과 솔직한 대화로 관계의 어려움을 참는 것이 도움됨 ·사장님과 깊이있는(심오한, 깊숙한) 주제의 대화를 교류함=사장님과 대화교류를 통한 정서경험을 함=퇴근 후 직장동료와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직장관계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대함 ·직장의 원장님과 깊이 있는 소통과 사적인 만남		·직장관계에서 자기개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함 ·직장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공감되는 대화를 나눔	·사장님과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친밀한 관계로 인한 유대감/만족감	·직장주변의 유대 관계로 인한 유대감, 흥미	·사장님이 미숙련함에 대해서 반대함 ·직장생활의 적응에 직장동료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됨	·직장상사에게 예쁨받음/직장상사에게 순응적으로 행동함으로 자신을 좋게봐줌 ·직장동료들간의 관계가 좋음/좋은 동료관계로 인해 편한 직장분위기가 형성됨=직장동료들의 칭찬	·현재 직장 동료관계의 유대감으로 인한 만족감 ·직장생활에서 상호교류하는 관계가 도움됨 ·직장관계에 대한 걱정과 달리 동료들의 친절함=직장동료들이 먼저		·직장에서 내 편의 사람들이 있음	·고용주와 수직적인위계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형성=사장님의 대인관계방식으로 친근함/편안함